

주가조작 판결 잇따라 집행유예... ‘숨방망이 처벌’ 논란



법원.

연합뉴스

법률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시장 교란에도 숨방망이 처벌

범죄수익 입증 부족시 집행유예
법조계 중형 양형 기준 마련해야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문제를 이유로 실형 선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

한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하한가 풀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하한가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계획적·조직적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했지만,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91,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12682·17594,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1563 사건에서도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사·종가 관여 등 전형적 시세조종 주문 유형이 인정됐음에도, 법원은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거나 범행 목적 부인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4.9.12. 선고 2023노649 판결에서도 상장사 대표이사과 증권사 직원, 주포 등 다수 피고인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해왔음에도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A와 주포 C 역시 둘 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피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서울남부지법이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주행동주의’를 내세워 4개 종목에 매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경영권 분쟁 등을 통해 지분을 고가에 매도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범 1명만 실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에도 서울고법은 상장사 대표이사과 증권사 직원, 시세조종 주포 등 다수 피고인이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과 주포, 증권사 직원 등 범행의 핵심 인물들조차 실형을 피했다.

이처럼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의 조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 입증이 부족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양형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이 시장에 끼치는 파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2023년 소시에테테네발(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법을 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 제재 수위도 강화한 조치다.

그러나 개정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형사처벌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선 법원에서는 “형법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개정된 방식을 양형 근거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다. 일부 판사들은 “과도한 산정 방식은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청 과준호 변호사는 “주가조작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전가하는 범죄로 단순 재산범죄보다 중대성이 높다”며 “범죄수익 입증이 어려움 때문에 숨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원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주가조작 사건의 양형은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개정된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설아 기자

정부, 주 4.5일 근무제 도입 포함 110건 법률안 연내 국회 제출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 추진
하위법령 66건 올해 안 제·개정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과제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건의 국정 과제를 확정 한 뒤 마련됐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원철 법제처장.

뉴스1

6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

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빈집·빈 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다.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법제처는 국정 과제의 중요도·시급성·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66건의 하위법령은 올해 안으로 제·개정을 완료하겠다”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해 정기국회에서 국정 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법무부, ‘학교폭력 대응 강화’ 전국 교사·교육청 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청소년 비행 차단·상담 강화

법무부는 지난 7~8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도로 전국 교사 및 교육청 위(Wee)센터 소속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청소년 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교사·상담사의 청소년 비행 예방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가해 학생 선도 기법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이다.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초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진로 체험, 교원 직무연수 등 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기관이다.

최희원기자

*광고책임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아청법
#도촬

성범죄 항소심,
꼭 잡아야 할 두 번째 기회

비교하기도, 따라 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성공사례
김형민 변호사의 실력과 진심입니다

의뢰인 후기
3,059

의뢰인 만족도
100%

의뢰인 총 평점
5.0/5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4층, 401호 | 대표번호: 02-591-8660
변호사 직통: 010-8074-8595 | *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추가 준수사항 대법 “기간 명시 없으면 위법… 처벌 불가”



대법원.

연합뉴스

출소 후 음주·음주운전 징역 8개월
대법 “준수 기간 미정 부과는 위법”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형벌과 별도로 부과받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준수사항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법하

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14년 6월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 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 씨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준수사항을 근거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요구에 따라 수집된 음주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도 위법한 준수사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죄 취지로 판단된 것”이라며 “이 판결은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는 등 법률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감독 권한 행사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아기자

교정시설 ‘보호장비 남용’ 시정 권고 “징벌 수단으로 보호대 사용 안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정시설 ‘비녀쪼기’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장호)는 교도소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와 함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보호실 수용, 부당 징벌 사례 등에 대한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막는 다며 급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채우거나 ‘비녀쪼기’ 방식으로 팔을 고정한 채 이동시키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수용자는 손이 붓거나 피부색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으며, 보호장비 사용 기록

누락과 보고 지연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헌법 제12조

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체 자유를 제약할 때에도 법이 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급속보호대 사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교도관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점검을 강화하고, 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남용을 막으며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수용자 처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소망기자

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

항소심 “족적만으론 특정 못 해”
“진실은 피고인 본인만 알 것”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샌들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2번의 감정 결과가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 특징점이 없다”며 “감정인의 숙련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체중, 발의 크기, 신발을 신고 서있는 자세 등에 따라 족적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문이나 DNA 등 보강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무죄를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 머리카락,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고 압도적 증명력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건을 검토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그건 피고인 본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지만, 그 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명 법칙과 사실인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를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다. 당시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강원경찰청 미제사건팀이 2020년 국과수 족적 감정에서 99.9% 일치 결과를 확보하고 지정 관계를 범행 동기로 특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수사를 거쳐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현장 족적과 혈흔 위치 등을 종합해 A 씨를 범인으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변호인 측은 “A 씨는 사건 당시 가족과 계곡에서 휴가 중이었고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사건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도 있다. 검찰의 수사는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A 씨는 아들이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고 범정을 빠져나와 가족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지만 1심에서 살인자로 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진실을 끝까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민기자

4차례 음주운전에 60대 女 2명 사망 항소심에서 형량 7년 → 3년 6개월로

운전 당시 만취 상태로 확인돼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km 제한 구간에서 약 85km로 고속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고, A 씨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당일 약 9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 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실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예준기자

‘국제 범죄’로 변한 돈세탁·보이스피싱... 法, 양형기준 신설 추진

국민적 관심 커진 자금세탁 범죄
권고 형량 상향으로 대응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제적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된 자금세탁을 실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새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불법 도박과 유사 카지노 등 사행성 범죄 양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하고 내년 3월 최종 의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새 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과 법정형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범죄 자금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가장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실효적 처벌을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 성 착취물 영상 판매 사

이트 ‘웹캠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 페와 차명 계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사례 등으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손질된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공진흥법상 유사 카지노업과 한국마사회법·경륜·경정법의 온라인 마권·승차투표권 발행 시스템 범죄가 새로 포함됐으며,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목표다. 반면 실제 적용이 거의 없는 유사 소싸움 경기는 제외된다.

양형위는 앞으로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범



대법원.

연합뉴스

조계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국제범죄가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자금세탁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설아기자

경찰관에 금품 주고 사건 소개받은 변호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시인

매달 뇌물 건네며 수배 정보까지

부산의 한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관 B 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금 200만 원씩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B 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B 씨가 승소하자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범죄성 성립’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 씨는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숨졌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임예준기자

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 60대 “죽일 의도는 없었다” 혐의 부인



분쯤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와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
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녔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가 든 칼을 뺏은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등 피가 나면서 자신의 피를 보자 흥분해 범행을 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죄가 중하고 아직까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지연기자

문지연 기자

檢,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먼저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

동창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부부 채무 관계 강제로 형성해 3억 원 갈취

가족 신고로 피해 사실 드러나...

성매매 강요 및 사기혐의로 구속

중학교 여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 남편인 B 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 씨에게 이른바 ‘화장품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 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 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는 또 C 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C 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감금됐던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달 7일 B 씨를 먼저 체포한 데 이어 15일 A 씨도 검거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별거 중이며



연합뉴스

서 범행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 씨 지인 2명도 불구속 입건했

으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최희원 기자

거리·주점서 폭행 등 난동 부린 40대, 구속영장 청구되자 잠적



동종 범죄로 실형 받은 이력 있어
法 “실형 선고불가피, 징역 10개월”

40대 남성이 거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주점에서는 깨진 술병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하는 등 여러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공동 폭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선 남성 B 씨(34)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9시 10
분쯤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자신들

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 C 씨(47)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C 씨의 목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B 씨는 이에 합세해 C 씨의 목을 때리고 목살을 잡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A 씨는 작년 6월 26일 0시 50분쯤 원주시 모 주점에서 남성 D 씨(27)와 술을 마시던 중 다뤘는데,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뒤 그 술병을 D 씨에게 들이대며 “○○○○야, ○○○폐จัก개”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6월 30일 오전 2시 2분쯤 원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영업 시간 종료에 따라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며 술상을 밀치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폭력 범죄
로 수차례에 벌금형, 실형 선고를 받

은 적이 있는 데다, 특수상해죄 등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7~8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수개월간 도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미약한 준법 의식, 재범 가능성 및 높은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중 범죄로 인한 누범기준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들이 수령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최희원기자

최희원 기자



법무법인 에이시스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터,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까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3인이 의뢰인의 인생을 변호합니다.



김훈정 대표변호사



최민형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표변호사

전화상담 02 · 522 · 7172

24시/긴급(연중무휴) 010 · 4238 · 7172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901호(서초동, 신한국빌딩)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스토킹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늘 그랬듯이 의뢰인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및 접견 상담 문의시 공소장·판결문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만취 외국인 성폭행’ NCT 출신 태일, 2심 징역 7년 구형

법원 “1심 형량 결코 무겁지 않아”
양형 불복만으로는 상고 안 돼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고법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이 모씨, 홍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문 씨 등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라며 문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서 나온 문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을 다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범 이 씨와 홍 씨도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씨는 “피해자분이 용서해줬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있다”고 했고 홍 씨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너무 많은 것들을 망쳤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이들의 선고 기일을 연다고 예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간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

뉴스1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채수범기자

법무부 “이화영 검찰 조사 중 연어회·소주 반입 정황... 감찰 지시”

수용자 신분으로 검사실 접견 의혹
수원지검 자체 조사 뒤집은 결과

법무부는 17일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 조사한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 중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됐다는 의혹 ▲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 중 부적절한 조지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고,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자·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의혹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났다”고 발표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작년 6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기존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정식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임예준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행성 여부 논란 대법원 “도박으로 판단” 원심 파기

도박과 사행 행위는 중첩 개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 이용자에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이를 맞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도박과 사행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도박은 참가자 여러 명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 행위는 한

명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A 씨가 참여한 사이트에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스포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예측 결과는 전적으로 우연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환전상에게 돈을 맡기고 얻은 게임머니로 도박에 참여했으며 그 경위와 기간, 환전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과 같이 도박과 사행 행위가 각각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고 중첩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화기자

방송 및 기사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he 시사법률

“제보합니다!”

“저는 ...”

“안녕하세요~ 제보 드립니다.”

1. 언론에 보도된 강력 사건의 당사자를 알고 계시거나, 교도소 등에서 같이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분 (예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2. 언론에 보도된 강력 사건 당사자 중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

취재 내용은 방송 및 기사로 보도될 예정입니다.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성전카페 직접운영 ▾ 🔍



LAW FIRM S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재판

항소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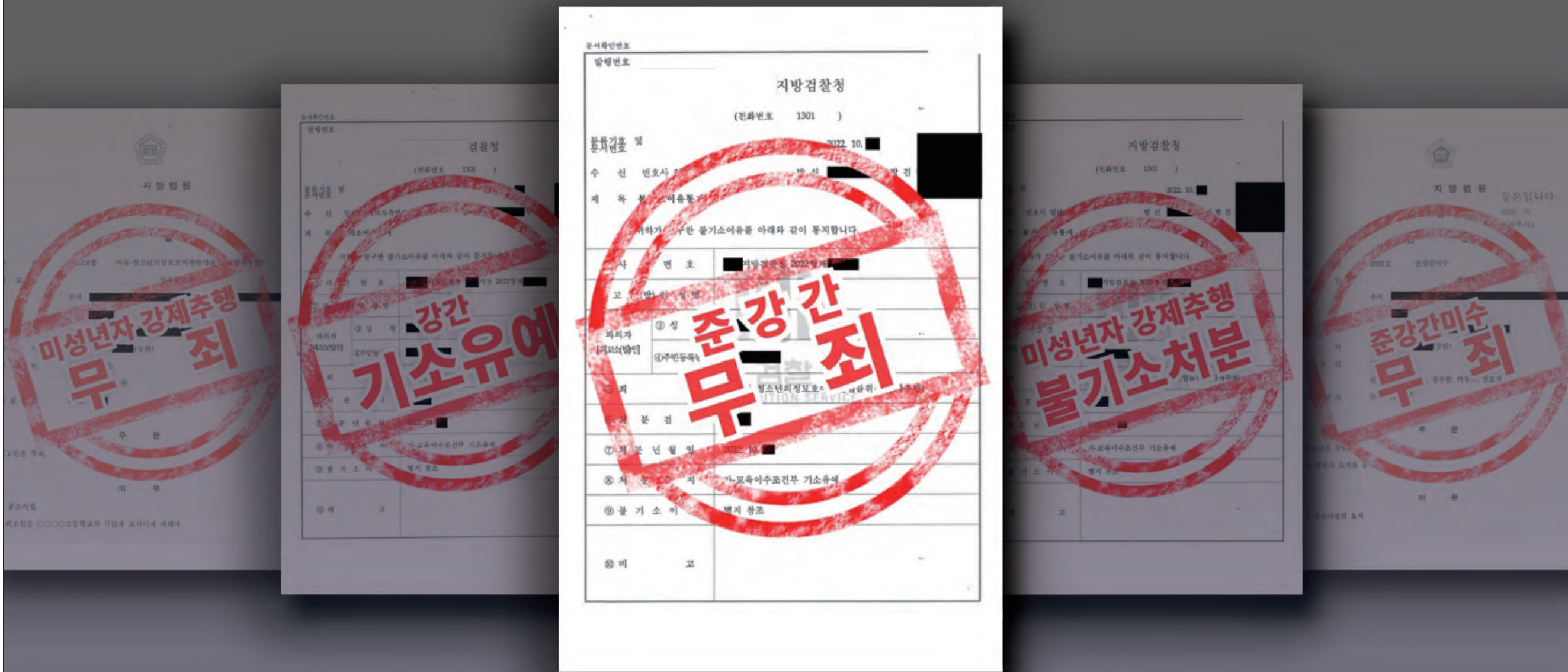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법무법인 에스가
정답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 희망은 현실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임태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화인빌딩 4층
☎ 06595 ☎ 02-3473-3880

변호사 선임, 접견 요청시 ✓이름 ✓수형번호 ✓법원명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고책임 : 임태호변호사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3도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받은 당사자다. ○○시장은 2021년 9월 피고인에게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을 정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그 통지 수단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문자메시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설령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송달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에 동의했는지가 문제됐다.

1. 2심 판단

제1심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심은 전자문서 자체는 ‘서면’에 포함될 수 있지만,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과거 피고인이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조치명령이 문서주의 예외사유(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청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처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경우 그러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치명령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주의 예외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다.

요약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받은 당사자로 ○○시장은 2021년 9월 피고인에게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을 정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그 통지 수단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용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게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1. 2심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조치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 조치명령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주의 예외도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조치명령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범죄 성립은 부정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법정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미수)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 이때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감·교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가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통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출입문 방향으로 질주했다. 그러나 그 순간 법정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 중이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지·검거했고, 검사는 이를 두고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뛰쳐나갈 당시, 법률상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했는지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도주(미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구속영장 집행의 개시 시점과 주체였다.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선고와 동시에 영장이 발부되

었고,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영장을 교부받은 뒤, 교도관이 피고인을 대기실로 인치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접 집행행위(현장에서의 영장 집행 고지, 인수 절차 등) 이전이라도,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는지가 문제였다. 또한, 형법 제145조의 전제가 되는 신분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의 해당성도 쟁점이었다. 피고인이 검거 시점에 이미 법률상 구금 상태였는지, 아니면 아직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이었는지가 문제되었다.

1. 2심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구속영장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청 6급의 직원이 법원 ○○○호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도주 시도는 이 직원과 대면하기 전에 발생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형소법상 집행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인데, 피고인을 대기실로 안치한 이는 교도관·법원경위였으므로, 아직 적법한 ‘체포 또는 구금’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도주의 전제가 되는 신분요건이 부정되므로 도주(미수)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법리로 무죄 유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의

로부터 구속영장을 교부받아 즉시 집행을 지휘하고, 그 지휘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았다. 구속영장 집행의 목적은 피고인의 신병확보로, 사법경찰관리의 형식적 집행행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검사 지휘하에 교도관이 법정에서 신병을 확보한 이상, 피고인은 이미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영장 발부·집행 지휘·인치·신병 확보는 모두 공개된 법정, 법원의 면전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절차적 권리·신체의 자유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적고, 집행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요약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뛰쳐나가려던 그 시점에 피고인이 ‘법률에 의해 체포·구금된 자’였는지다. 1·2심은 사법경찰관리의 직접 집행 전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정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의 즉시 지휘, 교도관의 신병확보라는 일련의 절차가 적법한 집행 개시와 구금의 성립을 이룬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이미 법률상 구금된 자이기 때문에 도주미수죄의 신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 1. 19.>

적용 법령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원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YMJ & PARTNERS

형사전문변호사

정재민 · 이민진 변호사가 다른 점

- 1 변호사당 100여건씩이 아니라 **20건 이하로 제한**해서 사건당 투입시간을 늘이고 **신속하며 소통**을 많이 합니다.
- 2 **모든서면을 판사/문학상 작가출신** 정재민과 **대법원 국선변호인 및 성범죄로펌 출신** 이민진 변호사가 직접 함께 씁니다.
- 3 변론을 열정적, 창의적으로 하며 **최후변론은 PT**로 합니다.
- 4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인생의 시기를 의뢰인과 함께 잘 살아내서 **훗날 후회를 남기지 않음**을 목표로 합니다.
- 5 방송출연 등으로 **변론능력과 인지도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잘 합니다**(최초 국민참여재판 주심판사 역임).

이민진 파트너 변호사

- 대기업임원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국회의원 위조및행사죄 - 무죄
- 배임중재죄 - 집행유예
- 10억원대 특경사기 - 집행유예
- 교사의 명예훼손 - 무혐의불송치
- 강제집행면탈 - 무혐의불송치
- 계주의 사기 - 무혐의불송치
- 공무원 뇌물공여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삽입무죄, 집행유예
- 대기업직원 배임수재 - 무혐의불송치
- 각종 민사, 행정, 가사, 상속 - 다수 승소

*광고책임: 정재민 변호사

정재민 대표변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5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 전화번호 : 02-536-9903 | *외부 지인을 통해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9층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김문정 변호사 (서초동, 아스트라) | 우편번호 06646

법무법인 선우 善友

윤보미 변호사

“ 경찰 및 검찰의 조사입회부터
접견, 재판까지 의뢰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역임
대기업 법무팀, 국가기관 근무경력
서울시 수서경찰서, 관악경찰서, 광진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김문정 변호사

“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고민하는 변호사,
누구보다 의뢰인의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전담 국선변호인
서울고등법원 전담 국선변호인
형사사건 약 1,000건 이상 수행 경력



각종 특수 사건 수임이력

(전세사기 · 분양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사건 대리) ·
범죄단체조직죄 · 법인 및 대표이사 회생 및 파산 · 알선수재 · 횡령 · 배임 등)

성범죄 (혐의없음 다수), 보이스피싱 (무죄),

마약 (일부 무죄 · 기소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등 수행 경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고의성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4도10141
[사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였다. 조직은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거나 범죄 연루를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현금을 준비했고, 피고인은 이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현금을 편취(사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하는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 믿고 현금수거업무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공모한 것인지 여부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 인정 범위 및 피고인의 사기·위조 관련 고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들의 외관·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위조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논의되었다.

1. 2심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과정, 대면 없는 업무 지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중시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은 일상적 거래관행과는 전혀 맞지 않은 점에 따라 피고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라 믿었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법원은 제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채용과정에서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송금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흔적이 없던 점 등에 따라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조 문서 교부 등도 수단적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파기환송하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는 전제 범행 구조를 몰랐더라도, 현금수거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며, 이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민원서' 등으로 정상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ATM 기기를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했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송금하는 방식 역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인 점, 짧은 기간 동안 9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면서도 범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나이·경력·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범행성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요약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성을 몰랐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 절차, 위조 문서 교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언론인이 받은 청탁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20도1263
[배임중재등]

사건개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배임중재,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피고인 2는 ○○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근무하면서 칼럼과 사설 작성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 2가 공소의 1(대기업 대표)로부터 회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9월 유럽여행 비용 약 3,973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았다.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 2가 공소의 1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가 특정 기업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교적 제공인지가 문제였다. 또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있는지, 묵시적 청탁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1. 2심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인 2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의 1이 내심 기대감 때문에 여행 경비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 2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와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심 역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소의 1이 피고인 2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 관련 평론이나 사설 방향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우호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비용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 2에 대한 해당 부분은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명시적인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판단 기준은 청탁의 내용, 재산상 이익의 액수·형식, 제공 방법, 거래 청렴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2는 ○○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서 특정 기업 관련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공소의 1은 피고인 2와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 관계가 깊지 않았는데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호화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하면서 “보훈 성격으로 모셨다”라고 진술해, 단순한 사교 목적이 아니라 우호적 여론 형성의 대가임을 드

러냈음을 지적하였다. 당시 공소의 3 회사는 주요 기업으로 언론의 논평·보도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 2는 그 보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는 공소의 1의 기대와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여행 경비를 수수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요약
피고인 2는 대기업 대표로부터 유럽여행 비용 약 4천만 원을 수수했다. 원심은 이를 단순히 우호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비용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명시적인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충분하다고 언급하며, 언론인의 지위, 금액의 규모, 제공 경위, 당시 기업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특정 기업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되었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2의 다른 혐의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합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7조(배임수중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광고책임변호사: 박보영 변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뢰(信賴)·정도(正導)·가치실현·혁신(革新)·열정(熱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횡령, 배임)

성폭력범죄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음주운전, 뺑소니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부산, 경남권 그외 전국 모든 사건

상담문의
우편번호 47511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빌딩 6층
TEL. 051-503-5886 상담전화바로연결 010-5821-5886

접견은 매주 최소 1회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변호사 선임, 상담, 접견 요청시 이름, 수형번호, 법원명,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SH LAW FIRM SUNGHEON 성헌



이제, 법무법인 유로만 믿으세요

여러분은 유로가 **형사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광고책임 : 박상철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 (기소 ≠ 유죄, 체념은 금물)

많은 피고인들이 기소되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증거 다름이 판결의 핵심

최근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나 임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진술조서,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기록들은 법정에서 배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이나 DNA 재감정 같은 디지털·과학 증거가 무죄 입증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항소·재심을 통한 역전의 기회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어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으며,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시설에서도 보장되는 권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과의 갈등이나 과잉 징벌, 부당한 처우에 직면하더라도 수용자는 여전히 헌법상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인생 재기의 출발점

변호인 선임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재판의 판결문 한 장이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방어권 행사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은 체념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수경 변호사 이서영 변호사 김화철 변호사 박상철 대표변호사 염승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유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이뤄낸
승소사례

4,965 건+

SINCE 2013
HISTORY OF 유로

2.013 년

유로에 대한 믿음
누적 상담 건수

7,565 건+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41 명광빌딩 3층
TEL : 02-534-6655 이메일 : lawfirm.youlaw@gmail.com

변호사 선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건번호**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가 없는 경우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 캄보디아 범죄조직서 극적 생환한 한국여성

해외 취업으로 속아 납치·감금
박찬대 의원이 구조작전 지원

“어떻게든 나를 찾아줘.”. “나 이거 목숨 걸고 보내는 거야. 살아서 보자.”

지난달 6일 A 씨의 휴대폰으로 다급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캄보디아로 일을 하러 갔던 여자 친구 이민정 씨(가명·여)였다. 구조 문자를 보낸 민정 씨는 ‘답장을 하면 안 된다’며 메시지를 곧바로 지웠다. A 씨는 얼른 화면을 캡처해 메시지를 저장했다.

민정 씨는 지난 7월 24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 민정 씨는 “디자인 일을 구하고 있었는데 관공이나 포스터, 명함 디자인을 단기로 하고 350만~40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자리가 아닌 칼자루였다. 그를 차에 태운 현지 범죄조직 조직원들은 곧장 칼을 들이밀었고, 민정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눈을 뜬 곳은 현지 범죄조직이 운영

하는 건물이었다. 식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숙소는 폐허 같았다. 범행을 거절하면 물고문이 이어졌고, 쇠파이프와 전기 고문 기구도 일상처럼 등장했다.

민정 씨는 마약 운반에서 시작해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져 강제로 전화를 걸어야 했다. 고문 중에 “살려달라”고 말하면 더 심한 폭력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민정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범죄조직이 쓰던 텔레그램을 잠시 쓸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재빨리 한국의 남자 친구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바로 흔적을 지우며 ‘답을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남겼다. 이제는 기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메시지를 받은 A 씨는 곧장 민정 씨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민정 씨의 아버지는 경찰과 외교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막막한 순간, 아버지는 평소 명함을 받아두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떠올렸다.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고, 곧바로 의원실이 움직였다.

의원실 김우성 비서관이 외교부와 국정원에 상황을 긴급히 알렸고, 민정 씨가 보내온 문자들은 곧 관계 기관 전체에 공유됐다.

전화가 걸려온 지 사흘 뒤,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에서 현지 경찰이 한 건물을 급습했다. 문을 열자 안에 갇혀있던 민정 씨와 함께 한국인 13명이 더 발견됐다. 모두 범죄조직에 납치돼 감금돼 있던 사람들이었다.

현지 경찰서로 옮겨진 민정 씨에게 한국인 영사가 다가와 “민정 씨가 신고를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정 씨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이 났다고 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민정 씨는 그는 자신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살아남은 증인’이라고 부르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 사례가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사실이 큰 위안”이라며 “제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조 작업에서는 박찬대 의원실의 역할이 컸다. 의원실은 민정 씨가 보내오는 문자들을 관련 기관들에 공유하고 해결을 독려하면서 구조작전의 허브 역할을 했다.

감금돼 있던 국민들을 구조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박찬대 의원실의 김우성 비서관은 “현장에서 직접 구출을 하거나 뛰어난 업무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를 이어주며 원활하게 구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신의 공을 낮춰서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로서 확실히 기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2022년 1건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25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사건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영사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지연기자

3년간 부부 관계 안 한 남편, 이유는 ‘클럽 다니며 원나잇’ 해서



뉴스1

출산한 이후 부부생활 꿈꿨다가
친구들과 나눈 경험담·영상 들듯

결혼 후 부부 관계가 없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원나잇을 즐기며 이를 친구

들에게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내 남편은 프로 원나이터”라는 제목의 사연을 공개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1년 연애 끝 결혼한 부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다. 이후 부부는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이 부부 관계에 관심이 없어 보여 따로 잠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남편이 굉장히 건실하고 종교나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등 성실한 이미지라서 부부 관계가 조금 부족했음에도 참고 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서 반전 실체가 드러났다.

남편은 대학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과거 여자 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거나 원나잇 경험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아내는 모든 게 무너졌다.

알고 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외도를 즐기느라 아내와의

부부 관계도 소홀했던 것. 심지어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클럽을 다니고 소개팅 앱을 통해서 여러 여성과 만나 원나잇을 해왔다.

결국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소송 중에도 클럽에 갔고, 새해 첫날 클럽에서 보낸 사진을 찍어 자랑스럽게 올리는 뽐뽐함을 보였다.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조 변호사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로 형사 처벌받는 것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라며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남편한테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SNS에 올린 사진도 증거가 된다. 혼인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열기자**

“바람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는 각서, 이혼 시 법적 효력 있을까?

각서까지 쓰고도 외도한 남편
“전 재산 뺏어오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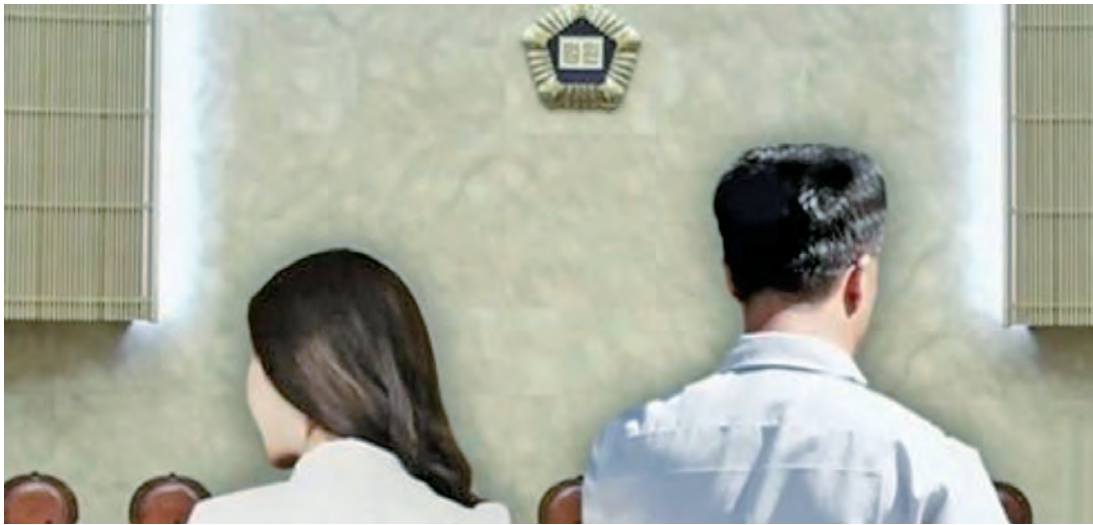
이혼 전 남편이 작성한 “또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한 여성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40년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눈물로 지냈으며 조인을 구했다.

A 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전업주부였던 나는 남편의 경제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집을 나설 수도 없었다”라며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전 남편이 다방 마담과 바람을 피웠을 때도 나는 또다시 참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성한 아이들이 내 편에 서겠다”라며 “아이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아이들이 나서준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에게 직접 각서를 쓰게 했다고. “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



연합뉴스

에게 준다”라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각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A 씨는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는 “반년 전부터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라서 적적한가 싶어 허락했다. 근데 집에서는 강아지를 돌보지 않으면서 산책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행기는 모습이 웬지 이상했다”고 전했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것이고, 강아지는 그 집을 드나들기 위한 구실이었다.

A 씨는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는데 전에 받았던 각서가 떠오른다”라며 “그 각서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우선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거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더라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거듭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

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주장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쓴 각서를 토대로 A 씨가 전 재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변 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남편이 각서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각서 내용대로 전 재산을 가져오는 건 어렵다”라며 “각서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남편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업주부인 A 씨가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한 행위도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며 “오랜 혼인 기간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재산 분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범기자

노약자석에 드러누운 할머니 보고 누리꾼들 “고단해 보여 안쓰럽다”

일각에선 “민폐 행위다” 지적도

지하철 노약자석 세 칸을 모두 차지한 채 드러누워 이동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한 시민이 공개하며 이 같은 행동을 비판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고단해 보이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인다”며 이해해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5호선 실시간, 이런 식으로 늙지 말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노약자석에 드러누워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가방은 베개 삼고 슬리퍼는 벗어 던졌더라.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쾅판을 치더라. 저렇게는 늙지 말자”고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시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노약자석 세 칸을 독차지하고 드러누운 승객의 무례함에 대해 지적했지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난 오히려 저 노인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서 마음이 안



보배드림 글무리

좋다. 너무 고된 하루를 보내신 것 같다”, “저 모습을 비난부터 하는 것보단 누군가 나서서 저분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며 노인의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저러한 행동은 누가 봐도 민폐가 맞다”, “옹호할 걸 옹호해야 한다”, “공공질서는 기본 아닌가”라며 A 씨의 생각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지연기자

묘 관리하는 손자 꿈에 나온 조부 금덩이 위치 알려주고 “5억 당첨”

“조부가 도와준 것 같다” 소감

금덩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복권 1등 5억 원에 당첨된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도1000 97회차 1등 5억 원에 당첨된 사연자의 후기를 공개했다.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스피도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밝힌 A 씨는 “평소 한 달에 한두 번 로또와 스피도 복권을 구매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산에서 나무를 가져오

라고 하셨다. 근데 산에 갔더니 나무 대신 주먹만 한 금덩이가 있었다”라며 “그날 오전 일을 마치고 집 근처 복권 판매점에 들러 로또와 스피도 복권을 구입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매칠 후 스피도 복권을 확인한 결과 1등에 당첨됐다. 당첨 소식에 크게 기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할아버지 묘를 관리해 왔는데, 이 1등 당첨의 행운은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A 씨는 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보라기자

사실혼 남편, 전처와 하룻밤도 모자라 가게 여직원에게도 추파 던져

재산 나누자 하니 “욕심내지 마!”
사실혼이어도 재산 분할 인정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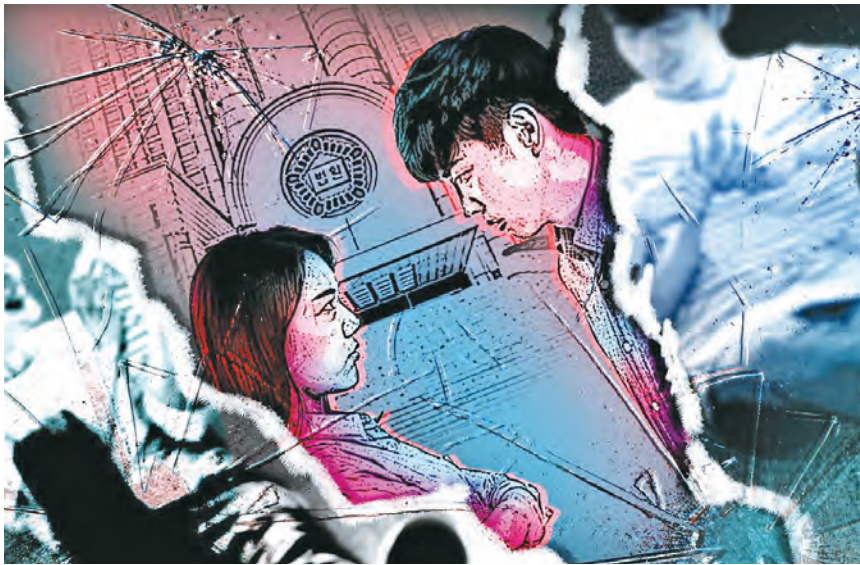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전처와 하룻밤을 보내고 여직원에게는 추파를 던져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 씨는 남편과 5년 연애 끝에 함께 살게 됐다.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둔 이혼남이었는데, 아들의 반대로 결혼 대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살림을 합치고 나서 벌어졌다. 남편이 사사건건 A 씨를 전처와 비교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의 지갑 속에서 여자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은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다.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스러웠던 A 씨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뒤늦게 사진 속 여성이 전처라고 실토했다.

남편은 “지갑에 사진 넣어둔 걸 깜빡했다. 전처라고 하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해명했



뉴스1

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크게 다툰 한 달 가까이 냉전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와중에 남편은 외박까지 하고 왔으며 A 씨는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 전화를 매일 확인했고, 사흘째 되던 날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한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이 바로 남편의 전

처였고, 남편은 술에 취해 전처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다. 남편과 전처는 “아들 일 때문에 잠깐 만났다” 술을 마셨는데 실수로 한번 그랬다”고 말했다.

편의점 공짜 빵 먹고 장염 걸린 아들 알고 보니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었다

아이들 먹는 건 조심할 필요 있어

편의점 업주가 건넨 유통기한 지난 공짜 빵을 먹은 아들이 장염에 걸렸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주부 A 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호의로 배운 음식을 먹었다가 탈이 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아들이 장염에 걸려 심하게 고생했다고 한다. 아이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묻자 한참을 주저하다 “며칠 전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가 빵을 주셨다. 공짜로 받은 빵을 맛있게 먹은 뒤 무심코 포장지를 보니 유통기한이 이를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저희 아이와 같이 먹은 친구들까지 함께 장염에 걸렸다. 아이에게 듣기로는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시락과 다른 음식을 줬다고 한다.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나눠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편의점을 찾아 점주에게 물었다. 점주는 “나도 먹고 여태껏 이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아이들 탈 나라고

일부러 준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A 씨는 “보통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얘기하고 먹을지 말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호의였다고 해도 아이들 먹는 건데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너무 예민하나”라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연자가 예민하다기보다 편의점 점주가 둔감한 거다. 저도 나쁜 뜻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다만 음식, 아이들과 관련한 건 조심해야 한다. 선의가 과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장님이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관장을 것 같은 음식을 주신 거구나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사실 저는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게 있으면 저는 먹는데 아들한테는 안 준다. 아프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운데도 시간이 지나면 버리게 된다. 남의 아이는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 며칠 지난 거 먹어도 별문제가 없다. 배탈이 거의 안 나는데 아이들이라(유통기한 지났다는 건) 무조건 얘기해야 한다. 선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기자

배꼽티 입고 춤추는 에어아시아 승무원 “성 상품화” vs “예쁜데 ”

소속 직원만으로 구성된 걸그룹
방콕 돈므앙-푸켓 구간에서 공연

에어아시아 여성 승무원들이 비행 중 댄스 공연을 선보여 ‘성 상품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틱톡 계정에 에어아시아 여성 승무원들이 비행 중인 기내 복도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약 1분 분량의 이 영상은 17일 기준 조회수 91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4만 개 넘는 ‘좋아요’와 함께 댓글 약 400개가 달렸다.

영상에 따르면 댄스 공연은 방콕 돈므앙-푸켓 구간에서 촬영됐다. 춤을 춘 여성들은 에어아시아 소속 5인조

걸그룹으로, 승무원 2명과 지상직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그룹은 시간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곡 ‘Tick-Tock (Say It)’으로 지난 3월 데뷔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는 이들의 의상이다. 승무원들은 배가 훤히 드러나는 크롭티나 허리선이 드러나는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짧은 바지를 입은 승무원도 있었으며, 승객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이들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공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누리꾼들은 “승무원이 왜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하나?”,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틱톡 갈무리

걸 시키나?”, “이제는 진짜 분야를 막론하고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데 혈안

이 돼있구나 싶다”, “기괴하다”, “승무원은 비상시 승객 목숨을 책임지는 직업인데 왜 승객들의 눈요깃거리가 돼야 하나?”, “전문성 없어 보인다”, “공연 안 보고 자고 싶다”, “유럽 등 안전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불편 해결이 우선 아닌가?” 등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새로운 시도라 흥미롭다”, “항공사의 색다른 마케팅”, “예쁘다”, “애 내가 탄 비행기에서는 이 공연을 안 해줬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 “짧은 공연이고 마케팅 차원이니 이해할 수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보라기자

16세 소녀에 ‘성관계 하고 싶다’던 男, 거절하니 차 몰고 와 살해

성희롱하다 가족들에 항의 받아
美검찰, “최고 무기징역형 가능”

16세 소녀가 만취한 남성이 몰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오전 2시 30분쯤 뉴욕의 한 교차로에서 16세 소녀가 SUV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운전자인 남성 에드윈 크루스 고메스(38)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정지된 상태였다. 사고 영상에는 고메스가 코너를 돌며 인도로 돌진해 차로 소녀를 기둥에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



뉴스1

겼다. 소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어머니도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시작됐다. 심하게 취한 상태

였던 남성은 피해자 가족이 식당을 나오자 소녀와 어머니에게 성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소녀에게 “너와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항의하면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주민들의 중재로 싸움이 일단락되자 피해자 가족은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고메스는 차량에 올라타 소녀를 기둥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건 전날 밤 소녀가 가족들과 아파트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건물 관리인은 “영상에서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건 힘들다”며 안

타까워했다. 그는 소녀와 가족이 그곳에 살기 시작한 지 겨우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는 생기가 넘치는 아이였다”고 회상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술집 앞에서 나를 때렸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 차에 올라탔고 그들을 따라가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3건, 음주운전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2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정현열기자

“누군가 중학생 유인한다” 의심 신고 연예기획사의 길거리 캐스팅 해프닝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유인 관련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중학교 인근에서 “한 여성이 중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해 30대 여성 A 씨를 특정했고, 인근 파출소에서 A 씨의 신

원을 확인했다. A 씨는 연예기획사 직원으로,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며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모델로 섭외하고 싶어 부모 연락처를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연예기획사 직원인 것을 확인했다”며 “단순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채수범기자

“상습 외도 남편, 소송 중 돌연사한 상간녀… 위자료 못 받나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돌연사해
전문가, ‘소송절차중계신청’ 필요

작은 외도로 속을 썩인 남편의 상간녀가 소송 중 사망해 큰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와 위자료 청구 문제에 관해 도움을 청했다.

A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있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은 그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고 A 씨는 여학생회 간부 출신이

었다. 두 사람은 서로 쟁겨주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챙겼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했다. 문제는 A 씨에게만 다정한 게 아니었다. 결혼 후에도 몇 차례 바람을 피웠고 A 씨는 그때마다 용서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얼마 전 A 씨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 작은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두 개가 들어있었고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지 만 남편은 화를 내며 거부했다. 이에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휴대전화를 건넸다.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다. 저는 그 증거들로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상대 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다. 저는 제

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거냐”라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이때는 ‘소송절차중계신청’을 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기 전에 사망해도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보라기자



변호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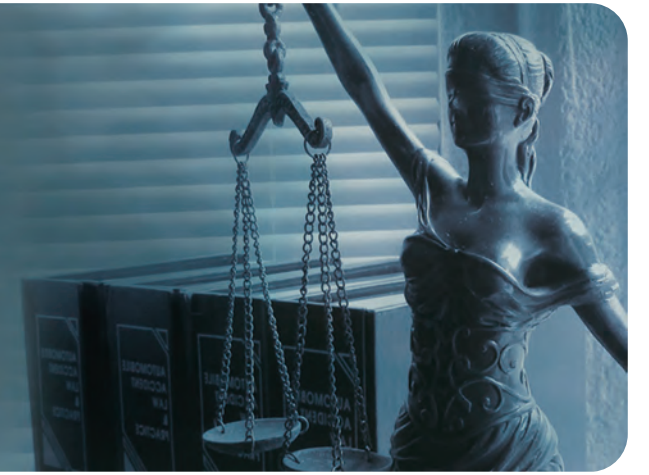


채의준

-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전략을 설계하고 결과를 이끄는 것,
그게 바로 태하가 말하는 프리미엄입니다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익준입니다.

1



채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의자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채번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고액의 합의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는 남성에게 불리하다’, ‘강간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3년’ 같은 정보들이 겁을 준 것이죠.

3



채 변 의뢰인은 최대한 빨리 사건을 끝내고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낸 사과문, 반성문, 합의금 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제출된 상황이었**고, 결국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시점에는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이었고, 의뢰인조차도 “구속만 면하게 해 달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4



채번 그러나 제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속옷이 찢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속 속옷은 마치 가위로 도려낸 것처럼 가운데만 떨어져 있었고, 주변 고무줄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적으로 화장실로 도망간 후 스스로 문을 열어 의뢰인에게 옷을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에서 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은 순간 무릎 꿇은 모습을 봤느냐?”, “맥주 한 잔만 하고 나오자고 해서 모텔로 갔다면서 왜 맥주를 사가지 않았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5



채번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



채번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질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선불리 사과문이나 합의금을 전달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의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처벌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의 채의준 변호사였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배희정 변호사

▲ 법률사무소로유
법률사무소로유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형사전문 변호사

상고심의심리대상과
재심이 인정되는 사유는?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의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룰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는 등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제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이익을 제기하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협회에



재심은 판결의 사실관계 또는 증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진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합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누락했다면 재판부의 과실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기록에 합의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상 합의서가 없다면 변호사의 제출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제출 서류를 누락했거나 제출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사에게 합의서 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을 열람하여 합의서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상해치사로 20년을 구형받고 실형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일부 공탁을 했고, 2심에서 유가족과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합의 진행 도중 2심 재판부 주심 판사가 갑자기 본인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에 합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판사는 끝내 예정된 기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A2. 재판 진행의 절차적 하자는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지만, 재심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사실관계 또는 증거에 중대한 오

류가 있을 때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일 지정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 지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음에도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재판부는 이미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집행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피고인의 죄책,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에서는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님의 상황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될 경우에만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재판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248번길 95-9(하동, 캡틴법조타운) 302호, 303호

형사전문변호사 배희정의 구독자 Q&A

29번째 질문

Q. 1심에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고일이나 판결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항소장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기한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판결문이 정당하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권 회복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권 회복 신청은 절대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책임 없는 사유”에만,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장 제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의 절차적 오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형 사유(형량을 결정하는 사정) 역시 새롭게 판단합니다. 항소장만 제출했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여전히 구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면 집행유예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임을 주장하거나,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를 제출하면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은 날짜가 선고일보다 늦었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 항소 기한이 됩니다.



광책임변호사
배희정

☎031-302-0111 법률사무소 로유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변호사 선임, 접견 문의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사건번호, 법원명이 없을 경우 사건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 상담 문의는 가족, 지인을 통해 연락 주시면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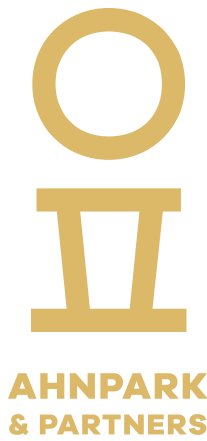
‘법률궁금증’ 제목으로 법률사무소 로유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질문은 Q&A 코너를 통해 배희정 변호사가 답변해 드립니다.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248번길 95-9 (하동, 캡틴법조타운) 302호, 303호 E.mail. lawyou0111@naver.com

신변의 사건 안팎



신승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팎
연세대학교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목포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디지털수사과장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변호사
대검찰청 인종·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AHN PARK & PARTNERS

감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수사 혐조의 구체적 사항은?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혐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 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진범을 밝히거나 공범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제보자의 재판에 양형 사유로 고려가 되려면, 단지 그러한 사실을 제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여 그 제보가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수사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변호사가 있긴 하나 경찰서에 구속된 뒤 급하게 선임을 하였고, 서로 뜻이 안 맞는 점이 있어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기 건 한 건과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있습니다.

태국에서 케타민을 여러 차례 밀수입해 국내로 들여온 사건으로 총 8명의 공범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총책이 현지에서 케타민을 구매하고 인솔책,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몸에 케타민을 숨겨 들어오는 역할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범 중 한 명의 부탁으로 운반책 두 명을 소개해 준 것뿐이고, 수고비로 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인데 검찰은 저를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밀수 전체 계획이나 구체적인 양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케타민을 만지거나 운반한 사실도 없는데 공소장을 보면 밀수량 8.3kg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 단순히 모집만 한 것까지 전체 양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무죄를 다투며 ‘마약 운반책역인지 몰랐다’고 주장 중입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을 줄이려 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변호인 말대로 인정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실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2. 우선,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단순한 사실 제보가 아닌,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 성과가 나와야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변호인이 질문자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조력을 해드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제가 어떠한 조언을 드리는 건 곤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일반적 법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결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 전체의 모의과

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물론 위와 같은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 사건의 공범이 되기 위해서 범행의 모든 세부 내용을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하거나 취급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대마와 같은 마약류이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대마 종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경우, 적어도 해당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대량 마약사범의 경우, 수입·매매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5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인과 잘 상의한 후 변론 방향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KB 우준타워 12층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대전지방법원 13합의부 재판부 분석

Q.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13합의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의 장민경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양지혜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근무하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호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2021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황령, 보이스포싱, 사기 방조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금 회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수해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적 노력이 있는 경우, 고액의 피해액이더라도 집행유예를 통해 교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향이 보입니다.

2024고합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액이 7억 2천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홍콩으로 출국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귀국 후 피해금 상당액을 회수에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잔존 피해액까지 일부 변제한 점, 피



뉴스1

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중시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4고합5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40만 원을 편취했으나,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범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24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인조간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중증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점, 피해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성폭력 범죄,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

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4고합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을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컸으나, 피고인이 약물·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 처벌보다 교정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면서 도 제자·배포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소지 범행인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하는 등 교정적 조치를 중시하

는 경향을 보입니다.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여부를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적 성향을 보이며, 초범이거나 교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중대하고 회복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통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Q.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2달간 보이스포싱 1차 콜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됩니다.

A. 최근 법원은 보이스포싱 조직 내 하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현금 수거·전달, 콜센터 등의 역할을 조직 범죄의 핵심 요소로 보고 엄정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111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 금액이 1억 3,1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이 없고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으며, 가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고합61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4월 9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단기

간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고합97 판결에서도 하루만 가담하고 수익이 전혀 없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종합하면, 법원은 보이스포싱 범행에서 미필적 고의도 폭넓게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2개월 가담 기간은 비교적 긴 편이어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일부 변제, 범행 동기·경위의 소명, 실제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출발 상담소

[독자 편지]



Q. 교정시설에서는 웹소설·만화 등을 복사해 프린트한 후 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차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가요?

A. 교정시설에서 웹소설이나 만화 등을 복사·출력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며, 인쇄·복사·출력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

만화를 출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의 비영리 복제를 허용하지만, 교정시설은 공적 공간이므로 ‘가정’으로 보기 어렵고 교도관 등 제3자가 복제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해당 독자분 우표값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유해 간행물이 아님에도 수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자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은 시설 질서와 보안을 위해 반입물 검열 및 제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단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곽준호 변호사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입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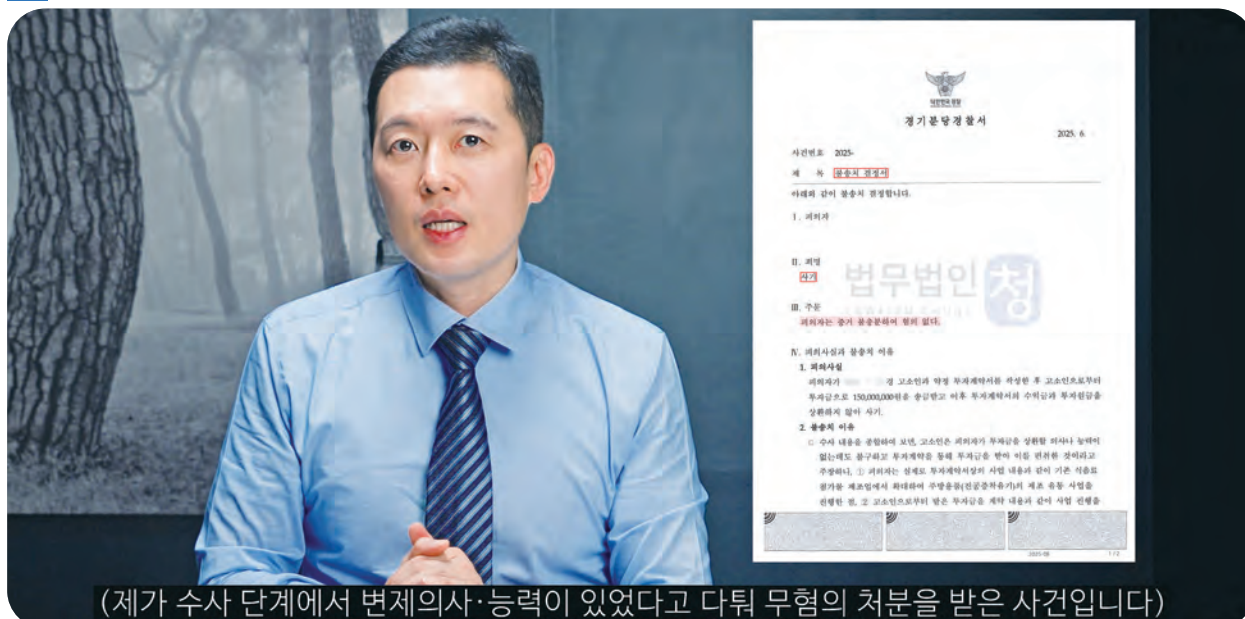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차별 달라지는 입증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재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형사 사건은 검찰 직수 사건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1심 - 2심 - 3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무혐의나 무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총 다섯 번 있는 셈인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각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곽변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이 무죄가 나올 확률은 각 단계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유죄 논리가 탄탄해지기에 반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경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고, 검찰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유죄 논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반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니 자연히 무죄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 사건 결과와 재판 단계 사건 결과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3



곽변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사업 자금을 투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변제 의사 및 능력은 당시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기존 채무 규모, 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갚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해보려 했지만 못 갚게 된 것이고, 사업이라는 게 원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자금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투자금을 받을 이유도 없었겠죠.

4



곽변 여기서 제가 수많은 사기 사건을 변론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과 재판에서 요구하는 입증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 중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으로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수사 단계에서는 과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정황만으로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사업 과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유죄 결론을 받은 독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반박을 해야 하는데, 재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5



곽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대질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씩 차례로 진술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따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사관은 이런 과정을 전부 본 다음 누구의 말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증인 신문에서만 다를 수 있고, 미리 준비된 질문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 바로 따지거나 재판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진술을 탄핵하기 어렵고, 허위 진술로 인정받는 것도 훨씬 까다로운 겁니다.

6



곽변 이제 왜 절차가 진행될수록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되셨는지요. 특히 2심, 3심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이미 한 차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새로운 증거 또는 다른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 사건이든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1심쯤 됐으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가끔 이미 변호사가 있어서 저한테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아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잘못된 게 분명하다면 1심부터 고쳐나 가야지,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는 건 너무 안일한 판단입니다. 오늘 드린 Tip(Tip)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

▲ 법무법인 JK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변협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미추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 JK 구성원 변호사
주요 사건

(1심, 항소심) 강간 무죄
(항소심) 도박장소개설 추정금 파기
(8.9억 원 구형 / 1.3억 원 확정)
(항소심) 보이스피싱 사기 - 집행유예
(1심 징역 4년 6월)
재심기각결정 즉시항고 인용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 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만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만을 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복방법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법이고, '성폭력범죄'는 이 법상의 '특정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법 제5조에 따르면, 검사는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 제6조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는 그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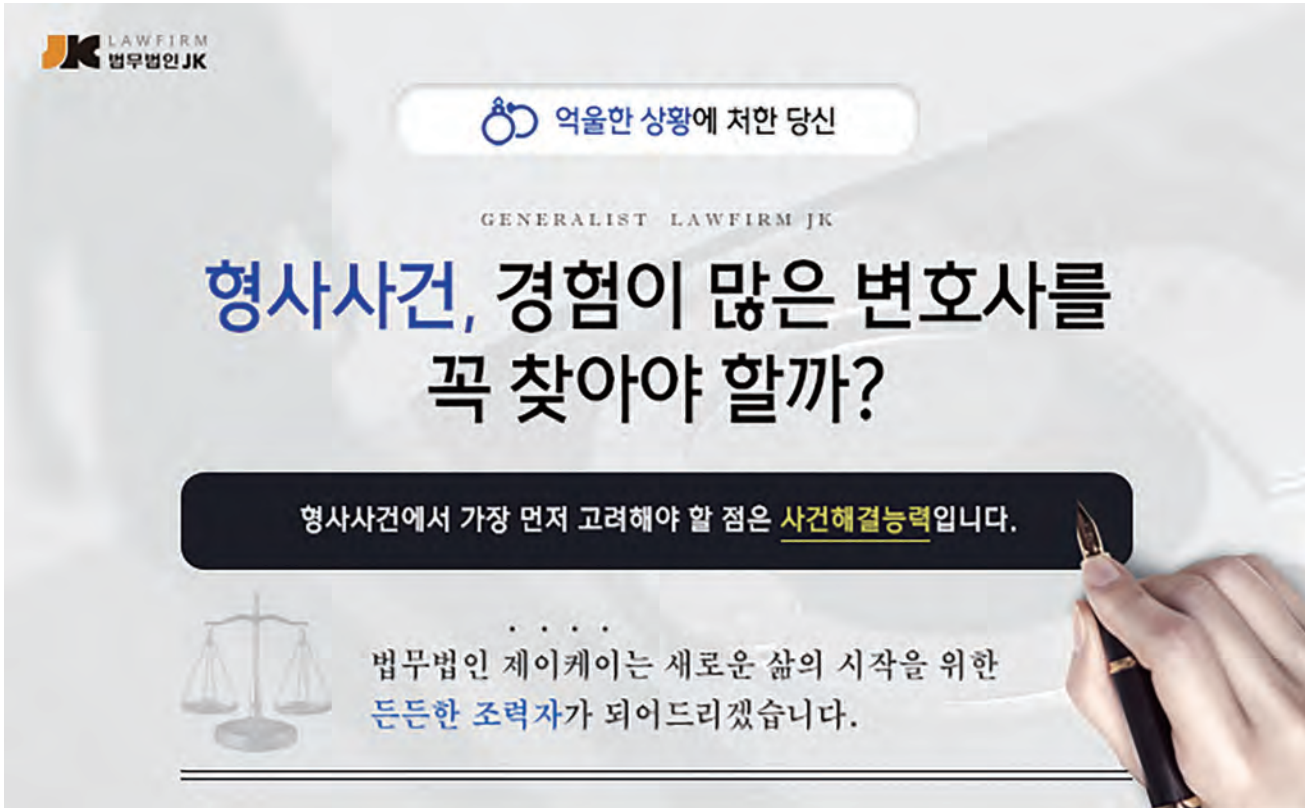
다만, 전자장치 부착법 제·개정 이

전의 범죄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은 2007년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최초 제정된 이후,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2012년 강도범죄 추가 및 범명 변경 후, 부착명령 대상 '특정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을 거듭하여, 2024. 1. 16.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법률 제20007호)인 현행법에 이르렀는데, 2007년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법 시행 이전에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행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고 하여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을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원은, 살인범죄가 특정범죄에 포함된 개정이 이루어진 후,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칙조항을 두고 있었고, 살인범죄 변론이 종결된 후 16년이 경과한 시점에 검사가 살인범죄자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부착명령 청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전고1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 전고12 판결 중 발췌 (전략)
위 부칙 규정은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하여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중략)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보안처분의 '재판시법' 원칙을 선언한 규정일 뿐,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4항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시적 한계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범죄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심 진행 중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착명령 사건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자 2022전도5).

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자 2022 전도5 중 발췌 (전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중략)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부착명령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심 종결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한편 질문자님과 같이 부착명령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통상의 상소가 아니라, 항고의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데, 이는 종국결정에 대한 항고이고, 즉시항고 규정은 없으므로, 불복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검사가 '변경'청구한 경우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결정문에 따르면, 이미 부착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검사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결정은 위 조항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만을 갈 수 있는지 여부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는 피부착자가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상 단기 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전자장치 부착법 제17조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출국' 등의 사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범죄경력에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현지 법령에 의해서도 이민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니다.

4. 결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후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나, 준수사항이나 기간 등을 변경하는 청구는 그 이후에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연에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의 경우, 법령상 허가를 받아 가능하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해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점진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초동, 은곡빌딩) 1층

새출발 상담소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 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청구 내용	1. 형 집행법 제 220조 전문(신문 - 더 시사법률 25. 08. 28. 자 참고, 최신 법령책에 존재하는 법령) (220조 4항, 5항 포함 일체 전문)
부존재 내용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 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 귀하의 청구 내용은 우리소(所)에서 문서·도면 등의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존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의 본문은 제 137조에서 끝납니다. 제220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마음을 추스리기 바랍니다.

제220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 절차 특례)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⑤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독자 편지]



Q. 제보 광고를 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어느 방송에 나가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질렀던 범죄가 언론 보도만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중순부터 더 시사법률과 유명 방송국이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1차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후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두고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건 방송

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프로파일러의 시각에서만 조망되어 당사자의 이야기는 배제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방송이 방영될 경우 세간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택된 사연의 당사자와는 옥중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생활했거나 그를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도 담아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제보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라는 매체는 독자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는 본지에서도 방송 내용을 지면을 통해 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여러분의 시선에서 사건을 풀어간다는 취지로 제작됩니다. 그동안 어느 곳에도 말하지 못했던 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나면, 이후의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현재 작가 팀에 공유해 검토 중이며, 이후 전부 개별 연락을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구여자교도소에 계신 독자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은 늦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석방 관련 문의는 변호사가 아닌 더 시사법률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시사법률 THE CURRENT LAW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문정역 SKV1C동 614호(우: 05854) | 구독광고접수 02-2039-2683 | 팩스 02-2039-3084 | 발행편집인: 대포 윤수복 | 편집국장: 손건우
제작국장: 김지우 | 2024년 9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가 50175 | 구독료: 한 달 1만 5,000원(부 1,000원) | 더 시사법률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성범죄, 마약사건

유치장, 구치소에 있는 **지금**이 법무법인 테헤란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사례 박테이터!
1심부터 항소까지 **모두 무죄**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리 아래 개울가에서 놓고 있던
10세 여아를 발견했습니다.
올라오려는 여아를 돕기 위해 양손으로 잡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7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당시 10세 여아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1회, 어깨 1회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당시 CCTV영상 및 주변인 진술을 확인했는데요.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여아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어깨를 톡 친 사실 외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다시 한 번 무죄를 받아 억울한 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수학



권진원 변호사

<p>아동성추행 혐의 징역 대신</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집행유예</p>	<p>전직장 동료 성추행</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무죄</p>	<p>필로폰 매수 및 제공 실형 선고됐으나</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집행유예</p>
<p>마약단지기 수범 1심 징역 받았으나</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집행유예</p>	<p>13세미만강제추행 혐의 항소까지 맡아 무죄</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무죄</p>	<p>아청법 음란물소지 위반했으나 항소까지 무죄</p> <p>사건처분결과증명서</p> <p>집행유예</p>



김수금 파트너변호사

공소장, 판결문 보내주시면
사건 검토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접견 문의는

사건번호와 법원명, 수형번호, 이름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전국 교정시설 맞춤 변호사 접견상담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전화주시면 빠른 대응과 접견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위한 접견비는 발생하나 선임 시 해당 비용은 수입료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방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찾아주는 로펌 |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 (☎ 06193)

직통문의 010-3002-8261

강간 강제추행 마약유통 마약판매
아청법 카탈 마약투약 마약밀수



신승우 대표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의 노하우,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 경력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
- | 창원, 대구, 인천, 울산, 서울지방 검사
- | 창원지방법 부부장검사
- | 마약분야 공인전문검사2급(블루벨트)
- | 마약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

법무법인(유한) 안팍
AHNPARK & PARTNERS

마약사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 신승우 변호사

✓ **신승우 변호사** 는 당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랜 검사시절 경험을
토대로 **뛰어난**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드립니다.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같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소 3명의 변호사가
Cross Check를 하며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미 힘든 당신에게
변호사로 인한 스트레스만큼은
주지 않겠습니다.

✓ **신승우 변호사** 의 조력



액상 대마, LSD 밀반입 사건 집행유예

국제 우편물로 LSD 밀반입
액상대마 매수와 흡연
투약 횟수, 밀반입한 양이 많아
구속이 확실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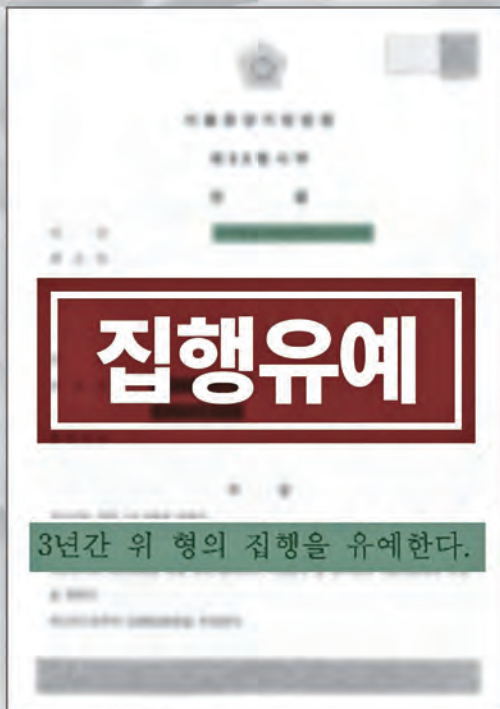
신승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필로폰 투약 재범이 받은 집행유예

과거 마약을 투약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
재범을 한 상황이라
실행 선고 확률이 높은 사건

신승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장기간 대마 흡연, 매매 집행유예 이유는?

스트레스가 커지며
장기간 대마 흡연 및 매매
오랜 기간 투약 혐의로
실행 살 확률이 높은 사안

신승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케타민 · 엑스터시 사건 집행유예 받아내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케타민 투약
추후,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사실 적발

신승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안팍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 상담 문의는 사건 변호를 기재 부탁드리며, 긴급 상담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주시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주사무소 : (06158)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 우준타워 12층

인천 · 부산 · 의정부 · 남양주 · 대구 · 제주 분사무소

Fax. 02-3478-0498 | E-mail. help@ahnpark.co.kr | 광고책임변호사 : 안주영 대표변호사



1533-0490

24시간 변호사 1:1 직접상담

꿈 해몽

[Q. 안경이 부러지는 꿈]

꿈에서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이 갑자기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잘 안 보여서 괜히 당황하고 답답해졌어요. 도저히 맞춰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맨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어요.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진 느낌이 너무 현실 같아서 괜 뒤에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 꿈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통찰력 상실, 판단력 흔들림, 혹은 시야 전환의 신호]

안경을 잃어버리는 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쳤거나 중요한 단서를 못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경을 새로 쓰는 꿈

새로운 정보, 또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안경이 더럽거나 흐릿해지는 꿈

판단이 흐려지고 있거나, 감정적 편견으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경이 맑게 닦이는 꿈

상황이 명확해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길몽입니다.

가상화폐 시세(거래상위)

2025. 09. 1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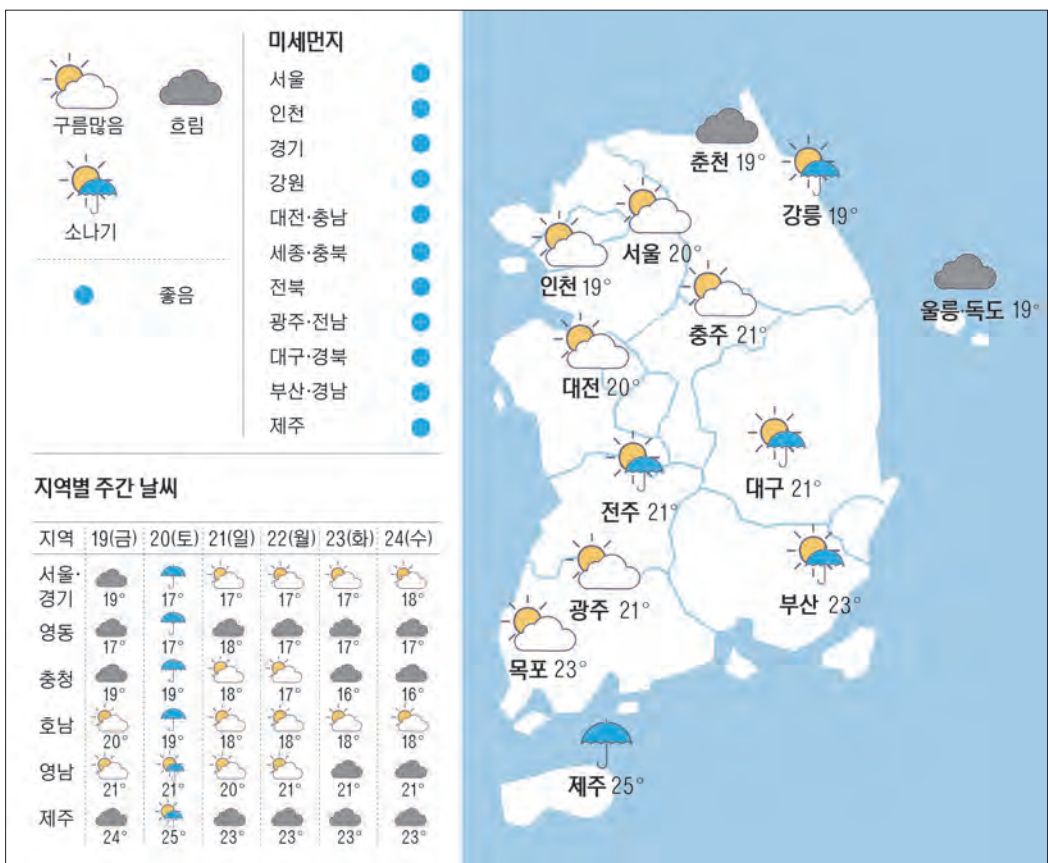
종목	시가	전일	고가	저가	거래량
이더리움	6,304,000원 ▲+0.69%	6,261,000	6,330,000	6,213,000	51,445,046ETH
엑스알피(리플)	4,209원 ▼-0.36%	4,224	4,230	4,182	60,810,947,262XRP
테더	1,391원 ▲+0.07%	1,390	1,392	1,388	150,887,641,515SDT
비트코인	162,848,000원 ▲+0.42%	162,167,000	163,000,000	161,720,000	1,194,242BTC
도지코인	372원 ▼-0.8%	375	377	367	511,398,907,106DOGE
아반티스	1,269원 ▼-10.44%	1,417	1,430	1,264	132,288,083,472AVNT
솔라나	328,200원 ▼-0.45%	329,700	331,000	325,000	471,877,755SOL
에이서	91.9원 ▲+3.26%	89	93.7	87	733,462,011,565ATH
이퓨터블엑스	1,001원 ▲+4.71%	956	1,030	934	49,373,189,528IMX
에테나	945원 ▼-2.58%	970	973	935	39,357,260,702ENA
카이토	1,563원 ▲+0.84%	1,550	1,693	1,550	20,601,187,955KAITO
월드코인	2,082원 ▼-0.9%	2,101	2,126	2,055	14,117,394,519WLD
아발란체	41,750원 ▼-0.02%	41,760	42,100	41,070	696,799,63AVAX
수이	5,005원 ▲+0.1%	5,000	5,055	4,972	5,693,688,136SUI

한국시간 오전 09시 ~ 익일 오전 09시까지의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자료출처: 업비트

오늘의 날씨

18일 목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 구름이 많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료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즐거리로 읽는 영화]



영화 <디베르티멘토> 포스터

<디베르티멘토>

개요 | 드라마 / 프랑스

개봉 | 2024.08.07

평점 | 8.62

관객 | 9,113명

감독 | 마리카스티유 망시옹-샤르

주연 | 올라아 아미라, 리나 엘 아라비, 닐스 아르스트롭

한 줄 평론

“음악과 삶을 희유할 기회를 춤추듯 돌파하는 오른손의 능동태”
-정재현, 영화 평론가

“단 하나의 정체성도 잃지 않은 조화와 공존의 볼레로”
-최현수, 영화 평론가

명대사

“나에게 시간은 끝의 다음에 시작해.
다른 세계를 향한 소망, 구원 받고픈 소망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지.”

즐거리

1995년, 파리 교외의 이민자 가정 출신인 ‘자히아 지우아니’는 지휘자의 꿈을 안고 파리 한가운데 있는 명문 음악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다. 이민자 출신의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높은 장벽을 마주하지만 지휘에 대한 열정으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세르주 첼리비다케’의 눈에 든다.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자히아는 다양한 출신의 친구들을 모아 특별한 오케스트라를 결성한다. 일명 ‘디베르티멘토’. 오직 손끝으로 세상을 움직인 17살 마에스트라의 감동 실험!

(최희원 기자)

판결 결과 맞히기 / 실제 재판 사례로 형량을 예측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국인 S로부터 “한국에 있는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계좌모집책(B)과 현금전달책(F)을 포섭하여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관리·감독했다. 2020. 4. 14.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G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속여 총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2,600만 원 중 500만 원은 H이 가져가고 2,100만 원은 E → F →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었다. 피고인이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되었다.

유리한 상황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1건에 한정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경찰·검찰 단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 부분적으로 인정 가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피고인은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에 의해 참여함

불리한 상황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 금액이 고액
-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 아니라 계좌모집·현금전달책을 포섭·관리한 중간 관리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피해금 전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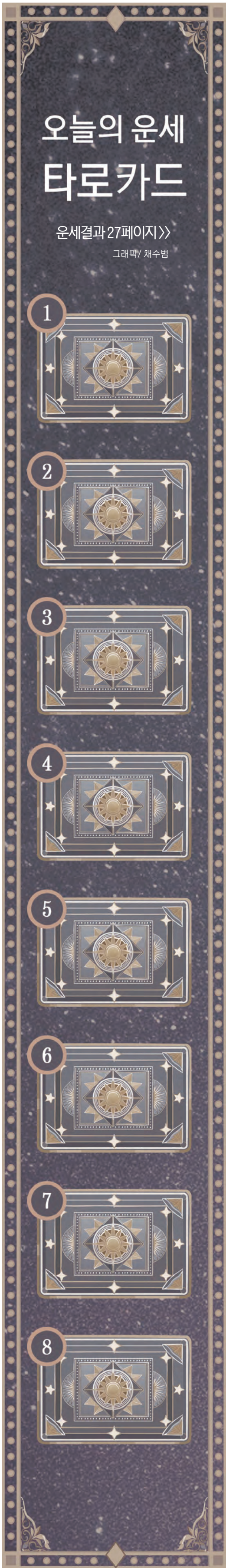
- 재판 과정에서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 반성 부족
-범죄 실행 방식이 계획적·조직적이고, 범행 후에도 은폐하려는 정황 존재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사기방조죄(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방조감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판결 결과 27페이지>>



‘손흥민 떠난’ 토트넘, UCL 복귀전서 비야레알에 1-0 승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3시즌 만에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비야레알(스페인)을 꺾었다.



골 감각 절정 손흥민, 솔트레이크 원정서 4경기 연속골 도전



골을 터트리고 환호하는 손흥민.

AFP=연합뉴스

‘국대→클럽’ 연속 득점 행진 손흥민, 시즌 초반 절정의 폼

물오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는 손흥민(LA FC)이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진출 후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솔트레이크 원정에서도 득점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하다.

LA FC는 18일 오전 10시 30분(이하 한국 시각)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레알 솔트레이크와 2025 MLS 원정 경기를 치른다.

LA FC는 정규리그를 7경기 남겨둔 현재 승점 44로 서부 콘퍼런스 5위에 자리,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하다.

하지만 더욱 수월하게 플레이오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4위 이내로 진입해야 한다.

MLS는 각 콘퍼런스 7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8~9위는 플레이오프 티켓 1장을 두고 맞대결을 치른다. 이후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3전 2선승제로 진행되는데, 정규리그 1~4위 팀이 홈에서 1차전을 펼치는 유리한 일정을 소화한다. 또한 정규리그 콘퍼런스 상위 2팀은 단판으로 진행되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안방에서 치를 수 있다.

2022년 이후 다시 한번 MLS 정상에 도전하는 LA FC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순위를 차지, 플레이오프 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게 급선무다. 순위 상승을 위해 승리가 필요한

LA FC는 손흥민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다.

손흥민은 직전 경기에서 헤트릭을 달성한 데니스 부안가와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빼어난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은 9월 한국 대표팀에 소집돼 지난 7일 미국과의 A매치에서 득점을 올렸다. 이어 10일 멕시코전에서는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 골을 넣었다.

소속팀 LA FC로 복귀한 뒤에도 손흥민의 득점포는 식을 줄 몰랐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열린 산호세 어스퀘이크전에서 1분도 안 돼 상대 골망을 흔들며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나갔다.

LA FC 이적 후 두 번째 골이며 첫 필드골이다. 손흥민은 앞서 댈러스

FC전에서 프리킥으로 MLS 데뷔골을 넣은 바 있다. 또한 손흥민은 LA FC 입단 후 원정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4차례 원정 경기에서 2골 1도움과 1차례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4골에 관여했다.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부안가의 존재도 손흥민에게 큰 힘이다. 부안가의 활약에 솔트레이크 수비가 분산돼 손흥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솔트레이크가 28경기에서 30골로 서부 콘퍼런스에서 최소 득점에 그칠 정도로 공격력이 약해 LA FC가 공격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손흥민의 4경기 연속골 가능성을 높여준다.

뉴스1



은빛 메달 건 우상혁.

도쿄 EPA=연합뉴스

우상혁, 투혼의 세계선수권 銀 “부상 없었다면... 다시 달릴 것”

부상에도 2m 34 돌파...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높이뛰기 역사 새로 써 7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실력 증명한 ‘스마일 점퍼’, 더 높은 비상 다짐

발목 부상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 세계선수권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기쁨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뛰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4를 넘어, 2m 36을 기록한 ‘파리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키(뉴질랜드)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 실외 육상 선수권 금메달을 노린 우상혁은 아쉽게도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22년 유진 대회 은메달에 이어 개인 두 번째 세계 실외 육상 선수권 메달이다.

이번 메달은 한국 육상 역사상 3번째 세계선수권 메달이다. 3개 중 2개를 우상혁이 획득했고 다른 하나는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수확한 동메달이다.

우상혁은 2m 20과 2m 24를 첫 시기에 가볍게 넘으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그리고 2m 28과 2m 31을 두 번째 시점에서 성공,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어 2m 34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시점에서 실패했으나 3차 시기에 가장 먼저 성공하며 금메달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커 역시 3차 시기를 성공시켜 금메달을 놓고 펼치는 마지막 승부가 이어졌다.

여기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우상혁이 2m 36 1차 시기를 실패한 반면, 커가 1차 시점에서 성공해 순위가 바뀌었다. 더 이상 2m 36을 넘을 이유가 없어진 우상혁은 높이를 높여 2m 38에 도전했으나, 2차례 모두 실패해 커의 우승이 확정됐다.

올 시즌 세계 실외 육상 선수권을 포함해 국제 대회 7전 7승을 달리던 우상혁은 기대했던 정상 등극은 무산됐으나 이번 대회에서도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톱클래스 점퍼임을 재확인시켰다.

우상혁은 대회 후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되돌아봤다. 우상혁은 대회를 앞두고 종아리 부상이라는 큰 악재를 맞았으나 투혼을 발휘, 큰 이정표를 세웠다.

뉴스1

눈앞의 마약,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세요. 당신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을 통해 접견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접견을 진행합니다. 또한, 별도 요청시 유사사건 실제 성공 판결문 실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전’ 형사사건 30년 베테랑, 백흥기 대표변호사가 직접 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 또는 백흥기 변호사 직통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적 코인 사기”... 총책으로 오인받은 A씨, 항소심 전략은?

조직적 코인 사기 범행의 중책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33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BK파트너스의 백흥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전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은 공범들 간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A씨를 총책에 버금가는 중책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흥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책임주의 원칙’과 ‘공범 간 형의 균형’에 입각하여, A씨가 조직 전체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범들의 조직 내 역할 관계를 도식화한 자료를 제출하고, A씨의 행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징역형 뒤집고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임에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원심재판부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었기에, 항소심을 맡더라도 양형에 변동 사항이 없는 한 형이 감형되거나 벌금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이 든 노모와 난치질환으로 병원을 매주 오고 가야 하는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흥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과 아이들의 병명 의무기록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연좌제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음주운전 또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의뢰인에 대한 형벌의 일반예방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가장으로 돌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엄중하다고 꾸짖으면서도, 백흥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친족 추행”...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이끌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친족을 배우자로 오인하여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수순 끝내 백흥기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 사건 항소심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백흥기 변호사 외에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함께 했는데, 항소심 전략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선에서의 의견차이라면 받아들였겠지만, 백흥기 변호사가 볼 때 타 법무법인의 변호사단의 전략은 100% 항소기각 필패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저들의 전략대로 간다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여곡절 끝에 백흥기 변호사의 전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책임은 막중해졌는 바, 백흥기 변호사는 사력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자세한 전략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사항으로 노출이 어려운 점은 양해바랍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기일 재판장의 질문을 듣는 순간, 백흥기 변호사는 자신의 전략이 통했음을 확신했고, 선고기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백흥기 대표 변호사

“두려움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해결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백흥기 대표변호사 직통번호 : 010-8614-1668

대표번호 : 042-472-1668 팩스 : 042-472-1660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204호 BK파트너스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손흥민 떠난’ 토트넘, UCL 복귀전서 비야레알에 1-0 승리



비야레알의 자책골이 터진 후 세리머니 하는 토트넘 선수들.

로이터=연합뉴스

전반 4분 자책골 → 찐물 수비로 리드
스페인 제압... 홈에서 귀중한 승점 확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3시즌 만에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비야레알(스페인)을 꺾었다.

토트넘은 17일(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야레알과의 2025-26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2024-25시즌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 EPL 순위(17위)에 상관없이 이번 시즌 UCL 출전권을 얻었다. 2022-23시즌 이후 3시즌 만의 UCL 복귀였는데, 첫 경기에서 까다로운 상대 비야레알을 제압했다.

리그 페이즈는 36개 팀이 참가해 1위부터 8위까지는 토너먼트에 직행, 9위부터 2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토트넘 승리에는 행운도 따랐다. 전반 4분 루카스 베리발이 올린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

가 잡았다가 놓치면서 그대로 자책골이 됐다. 이후 토트넘은 비야레알에게 유효 슈팅을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찐물 수비’로 리드를 지켜, 승점 3점을 얻었다.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는 페넬티크로 두 골을 넣은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의 활약을 앞세워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를 2-1로 꺾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22분 티모시 웨아에게 먼저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음바페가 전반 29분과 후반 36분 페넬티크로 동점 골과 역전 골을 기록해 승부를 뒤집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니 카르바할이 후반 27분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으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유벤투스(이탈리아)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는 후반전에만 8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 4-4로 비겼다.

벤피카(포르투갈)는 콰라박(아제르바이잔)에 2-3으로, PSV에인트호번(네덜란드)은 위니옹SG(벨기에)에 1-3으로 각각 일격을 당했다.

뉴스

롤리, ‘양손 타자·시애틀’ 최다 홈런 타이

64년 만에 미키 맨틀 작성한 기록 돌파
스위치 히터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 매리너스)가 홈런포 두 방을 쏘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단일 시즌 스위치 히터(양손 타자)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고, 시애틀 구단 최다 홈런 타이 기록도 작성했다.

롤리는 17일(한국 시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코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외의 방문 경기에 2번 타자 포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55, 56호 홈런을 날렸다. 3회 초 선두 타자로 등장한 롤리는 상대 오른손 선발 마이어와 외야의 커브를 건어 올려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솔로 야치를 그렸다.

시즌 55호 홈런을 친 롤리는 1961년 미키 맨틀이 작성한 양손 타자 단일 시즌 홈런 기록(54개)을 64년 만에 바꿨다.

롤리는 4회 초 무사 1루에서는 왼손 불펜 대니얼 린치 4세의 체인지업을 건어 올려 중앙 팬스를 넘겼다.

또한 롤리는 시즌 56호 홈런을 쳐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7년과 1998년에 달성한 시애틀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홈런 1개만 추가하면 롤리는 시애틀 구단 신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롤리.

연합뉴스

기록을 작성한다.

이날 롤리는 3회에는 좌타자로, 4회에는 우타자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MLB닷컴은 “롤리는 통산 5번째이자 4월 16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한 경기 좌우 타석 홈런’을 쳤다”라고 전했다. 롤리는 아메리칸리그(AL) 홈런과 타점(118개) 1위를 달린다. 홈런은 내셔널리그 1위 카일 슈워버(53개·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앞선 MLB 전체 1위다.

MLB닷컴은 “롤리가 AL 최우수선수 상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논평했다.

이날 시애틀은 5타수 3안타 3타점을 올린 롤리의 활약 속에 캔자스시티를 12-5로 꺾고 10연승 행진을 벌였다.

뉴스

161km 빠른 땅볼이 상대 호수비에 ‘턱’... 불운한 이정후

5경기 연속 무안타에 타율 0.262로 하락
잘 맞은 타구인데 막힌다... ‘지독한 불운’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며 5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이정후는 17일(한국 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외의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을 향하거나 상대 호수비에 걸리면서 이정후는 지난 11일 애리조나전부터 시작된 무안타 사슬을 5경기째 끊지 못했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왼손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의 직구를 받아쳐 시속 162km 빠른 땅볼 타구를 만들었지만, 타구가 2루수 정면으로 날아가는 불운을 겪었다.

3회에도 이정후의 시속 154km짜리 땅볼이 애리조나 2루수 케텔 마르테에게 잡혔다.

불운이 이어졌다.

이정후는 6회 존 커티스의 시속 150km 직구를 공략해 좌중간으로 공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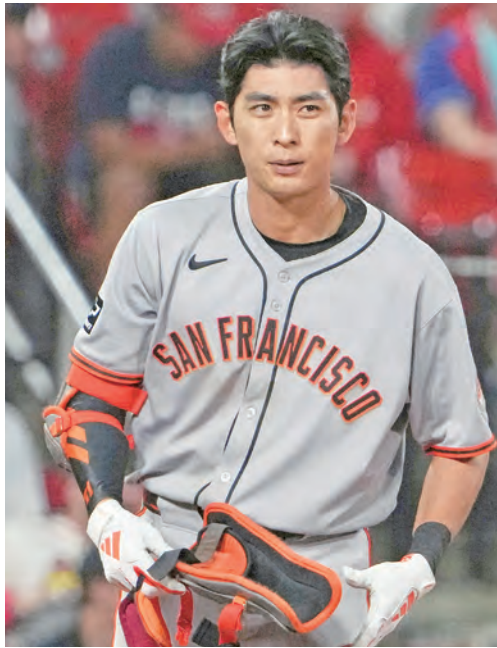
하지만 시속 161km로 93m를 날아간 공을 애리조나 중견수 알렉 토머스가 몸을 날려 잡아냈다. 이 타구의 기대 타율은 0.670이었지만, 결과는 아웃이었다.

이정후는 9회 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1루수 앞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4에서 0.262(530타수 139안타)로 떨어졌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에 5-6으로 9회 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4연패 늪에 빠졌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 뉴욕 메츠와 격차 3게임으로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5-5로 맞선 9회 말 애리조나는 무사 1, 2루 기회에서 블레이크 알렉산더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했다.

샌프란시스코 투수 라이언 위커가 공을 잡아 1루에 송구했으나 1루 커버를 한 2루수 케이지 슈미트의 발이 1루에서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AP=연합뉴스

실책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이어간 애리조나는 조던 로라의 빗맞은 1루수 앞 내야 안타로 끝내기 점수를 뽑았다.

뉴스

‘메시 1골 1도움’ 마이애미, 김기희 뒀던 시애틀에 3-1 완승



마이애미 메시의 골 세리머니 장면.

AFP=연합뉴스

메시·알바 합작으로 리턴 매치서 설욕
김기희, 부상에도 풀타임 소화해 투혼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가 시애틀 사운더스에 리그스컵 결승전 패배를 깨끗하게 되갚았다.

마이애미는 17일(한국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체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나란히 1골 1도움을 기록한 리오넬 메시와 조르디 알

바의 활약을 엮어 시애틀에 3-1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벤 필드에서 열린 2025 리그스컵 결승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었다. 당시 마이애미는 0-3으로 완패해 시애틀에 우승 트로피를 내줬다.

경기 후에는 양 팀 선수단이 충돌하면서 마이애미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상대 팀 스타프에게 침을 뱉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수아레스는 결국 리그스컵 6경기에서 MLS 3경기를 더해 총 9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16일 만에 이뤄진 이날 두 팀의 재대결에는 나서지 못했다.

이날 메시는 전반 12분 알바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전반 41분에는 알바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찰라준 공에 문전으로 쇄도하며 왼발을 갖다 대 결승 골을 뽑았다.

앞서 전반 28분 수비 뒤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 골문 앞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로 슈팅한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던 아쉬움을 날려보냈다.

시즌 20골(11도움)을 기록한 메시는 득점 선두인 내슈빌 SC의 샘 서리치(21골)를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마이애미는 후반 7분 호드리고 데 파울의 코너킥을 수비수 이언 프레이가 머리로 받아 넣어 승부를 더 기울였다.

시애틀은 후반 24분 오베드 바르가스가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더는 마이애미 골문을 열지 못했다.

시애틀의 중앙수비수 김기희는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후반 초반 태클을 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밟혀 왼 팔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이후 응급 치료를 받고는 붕대를 감은 채 남은 시간도 뛰었다.

이날 승리로 마이애미는 승점 49로 동부 콘퍼런스 5위로 뛰어올랐다. 시애틀은 승점 45에 머물면서 서부 콘퍼런스 4위를 유지했다.

뉴스

이강인, 아탈란타전 출전... 한숨 돌린 PSG

“큰 부상 아냐” 훈련 정상 소화했다
줄줄이 부상 악재에 시달리는 PSG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교체돼 우려를 낳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24)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새 시즌 첫 경기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PSG는 18일 오전 4시(이하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아탈란타(이탈리아)와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1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PSG는 창단 후 처음으로 지난 시즌에 UCL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경기 하루 전인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상 선수들의 몸 상태에 언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강인은 지난 15일 열린 랑스와외의 2025-2026 프랑스 리그1 4라운드 홈 경기(2-0 승)에 선발 출전했다가 후반 12분 교체됐다.

직전에 페넬티아크 정면 부근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뒤 오른 발목을 잡고 주저앉았고, 결국 더는 경기를 뛰지 못했다.

시즌 개막 이후 4연승을 달리고 리그1 5연패를 향해 순항 중이지만 부상 선수들이 많은 PSG도 고심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강인은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한시름 덜었다.

이강인은 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AFP통신은 “이강인은 겉보기에는 불편함 없이 훈련했다”라고 전했다.

PSG 구단이 경기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상 선수 관련 최신 정보에도 공격수 데지레 두에와 우스만 땀벨레, 수비수 루카스 베라우두만 부상자로 분류됐다.

두에와 땀벨레는 프랑스 대표팀 소집 기간 다쳐 계속 치료 중이었고, 베라우두는 랑스전에서 왼쪽 발목을 다쳤다.

한편 엔리케 감독은 역시 랑스전에서 종아리를 다친 공격수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가 훈련 후 어떤 느낌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성시경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 “규정 몰랐다, 깊이 사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9월 10일 등록 신청 후 대기 중인 상태

가수 성시경이 소속된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미등록 건과 관련, 성시경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가수 성시경.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앞서 옥주현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옥주현 측도 “2022년 4월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뉴스1

뉴스1

이장우 카레집, 혹평 받더니... 결국 9개월 만에 폐업 진행

우동·순댓국·호두과자 가게는 운영 중
“음식 퀄리티 유지 어렵다” 발언 재조명

배우 이장우가 운영하던 카레 가게가 폐업했다.

지난 16일 이장우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의 카레 전문점 가게가 지난달 31일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가게 측은 이에 대해 포털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9월 1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를 공지했다.

가게는 이장우가 지난해 12월 오픈한 카레 전문점이다. 하지만 오픈 후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이장우.

뉴스1

이런 가운데, 이장우는 지난해 정준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음식 사업에 대한 고민을 털

등에서 가게 메뉴의 맛과 비싼 가격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는 후기가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가게 외에도 이장우는 우동집·순댓국집·호두과자 프랜차이즈 등을 운영 중이다.

어놓기도 했다.

특히 이장우는 당시 영상에서 순댓국집 프랜차이즈에 대해 “처음에 오픈하고 장사가 엄청 잘 됐다. 그런데 이게 맛이 변하니깐 점점 내려갔다”며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퀄리티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장우는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며 “얼마전부터 바뀌서 가고 있고, 퀄리티가 올라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장우는 오는 11월 23일, 6번째 교제 중인 조혜원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뉴스1

서장훈 “발음, 표정 모두 다 부자연스러워” 성형 수술에 1억 넘게 쓴 女에 따끔한 조언

얼굴 모든 부위 성형했지만 불만족
“여기서 손 더 대면 망가진다” 조언

서장훈이 성형 수술에만 1억 원을 넘게 쓴 여성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다.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성형수술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30대 여성이 사연자로 등장했다.

이날 사연자는 두상, 손발 등 몇 군데만 제외하면 수술을 안 한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MC 서장훈, 이수근이 안타까워하며 쓴소리를 시작했다. 특히 서장훈이 “지금 여기까지 한게인 것 같아.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다음에는 망가질 일만 남았다”라고 솔직히 말했다.

아울러 “지금 발음, 표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냐? 너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라며 “네가 어디 수술했다는 얘기를 안 해줘도 다 알 것 같아. 표정이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어”라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서장훈이 “마지막 수술이 언제였냐?”라고 묻자, 사연자가 “한 달 전에 코 보완 수술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갈무리

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장훈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야. 손을 또 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스스로 망가트리는 거야. 진짜 피부 관리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라”라며 단호하게 생각을 전했다.

이수근 역시 “수술할 생각 그만하고, 일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네 모습을 찾아라. 널 사랑해 주고 더 이상 하지 마”라고 거들었다.

뉴스1

안소영 “‘애마부인’ 감독, 사전 협의 생략하고 시도 때도 없이 벗으라고... 촬영장서 많이 싸워”



‘올미라’ 유튜브 갈무리

대본에 없는 노출신 현장에서 요구해
감독과의 불화로 시종2 출연은 불발

배우 안소영이 영화 ‘애마부인’ 촬영장 비하인드를 털어냈다.

윤미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화끈하게 애마부인(愛馬夫人) 베드신 썸 (with 안소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윤미라는 “‘애마부인’이 1, 2, 3화로 나왔던

거 같은데”라고 하자 안소영은 “1만 했다. (사실) 감독님이 2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이 몇 번 제의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네가 안 해? 너 아니더라도 다른 애마부인을 만들겠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주변에서 나한테 막 이러더라. ‘애마부인2’는 안소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가서 ‘애마부인2’를 꼭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해서) 싫다더라”고 털어냈다.

안소영은 ‘애마부인’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아한 게 없었다. 대본에 있었으면 내가 (안했지)”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 현장에 가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힘들었다. 감독하고 현장에서 만나면 싸워서 눈도 안 마주쳤다. 감독이 시도 때도 없이 (벗으라고 했다)”고 고충을 전했다.

뉴스1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주사무소 서울 | 전국 6개 분사무소 인천·수원·대전·천안·**안산**·제주 **법무법인 태하**

형사 사건, **안산**에서 직접 부딪치며 해결해왔습니다.

“같은 형사 사건은 없습니다.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안산 분사무소 총괄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시청 도보 3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 기 무 죄	살 인 미 수 원심파기 감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원심파기 감형	성 폭 법 위 반 원심파기 감형	특 수 폭 행 기 소 유 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 **24시 법률상담 | 1533-1403**
변호사 선임이나 접견 상담 문의는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지인을 통해 방문 또는 연락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상담 1661-9983
이메일 : frontier9575@naver.com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 혐의,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구속 상태이거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주목해주세요!

Q. 항소를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 선고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정상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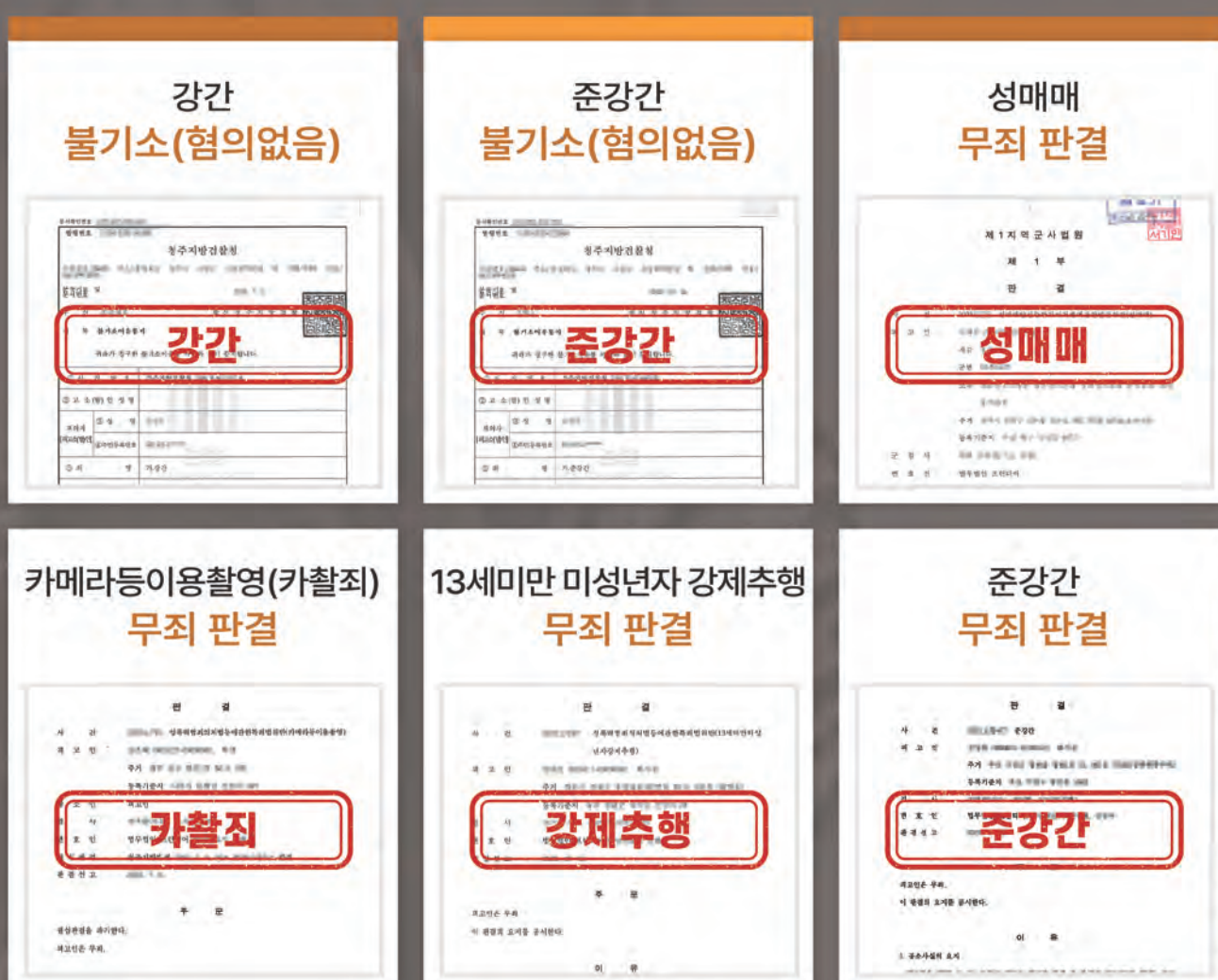
Q.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결과도 그대로일 수 있으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꼭 필요합니다.

Q. 항소가 기각되면 가석방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모법적인 수형 태도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실력·노하우를 모두 갖춘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청주 | 공은택 변호사

화성 | 문희웅 변호사

* 변호사 접견, 선임을 고려하시는 분은 (법원명), (사건번호), (수번)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직통전화 : 010-2419-9575

이메일 : frontier9575@naver.com /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주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180, 아이홈대연 상가 301호

분사무소 : 서울 | 부산 | 화성 | 청주 | 천안 | 아산 | 여수 | 포항

한지은, 반려 도마뱀 학대 의혹 해명에도 논란 지속

꼬리뼈 드러낸 앙상한 도마뱀 모습에
“건강 문제없다” 해명에도 의혹 커져

배우 한지은이 반려 도마뱀 학대 의혹에 해명했으나,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파충류 유튜버의 댓글까지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의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한지은은 지난 6일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출연해 반려 도마뱀 모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당시 한지은은 아침에 일어나 모니에게 물을 분사하며 먹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지은의 매니저는 “지인을 통해 키우게 됐다”며 “함께한 지는 약 4~5개월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지은은 스튜디오에서 '전참시' MC들에게 “오래 못 놀아준다”며 “온도에 민감하다, 사람 온도와 잘 안 맞는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일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는 한지은의 반려 도마뱀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도마뱀이 지나치게 마른 상태이며, 활동성이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장면의 '전참시' 쇼츠가 올라온 댓글란에도 “저렇게 뼈가 다 드러난 것 처음 본다”, “폐사 직전 상태로 보인다”, “크기와 몸 상태가 기이”, “꼬리가 어떻게 뼈만 남을 수 있나” 등 우려가 이어졌다.

뒤늦게 논란이 확산되자 한지은의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한지은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반려 도마뱀 모니를 입양 받고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며 관찰하고



배우 한지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모니도 활발하게, 건강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함께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지은 소속사의 해명에도 학대 의혹은 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갈무리

속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참시' 쇼츠 댓글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도마뱀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말랐다”, “사진 올라온 것 봐도 저렇게 마른 도마뱀은 없었다”는 등 계속해서 지적하는 의견을 올렸다. 반면 “초보자의 실수이거나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키우길”, “학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확정하지 말아야”라는 반론도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한지은의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도 지적 댓글이 다수 달렸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입양 보내라”,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사람 처음 봤다”, “책임감으로 키워라”, “도마뱀 근황 좀” 등 댓글을 달았다.

무엇보다 구독자 103만 명의 파충류 유튜버 다흑이 '전참시' 쇼츠에 달았던 댓글도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흑은 해당 영상에 “뼈밖에 없긴 하다”고 댓글을 달며 도마뱀의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흑 역시 도마뱀의 지나치게 마르고 앙상한 상태를 인정한 점을 들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식, ‘출연료 5억 원 설’ 확산에
소속사서 입장 밝혔다… “사실 아냐”

과도하게 높이 책정된 출연료가 논란돼

배우 박형식이 출연료 '5억 원 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형식 소속사 레브엔터테인먼트는 17일 “박형식의 회당 출연료와 관련, 실제와 다르게 기정사실로 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라면서 “최초 보도된 ‘닥터슬럼프’부터 이번 ‘트웰브’까지, 언론을 통해 노출된 박형식 배우의 출연료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박형식 배우는 맡는 작품마다 성실히 임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또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한 매체는 박형식이 최근 종영한 KBS 2TV 토일드라마 '트웰브'에서 회당 출연료 4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주변 마동석은 5억 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박형식이 지난해 출연한 '닥터슬럼프'를 통해 출연료 5억 원을 받았다는 설도 흘러나왔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시리즈로,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천사들이 악의 무리에 맞서는 전투를 그린 액션 하이로물 드라마다. 닐슨코리아 기준 1회 전국 시청률 8.1%로 출발해 지속적인 하락세 끝에 2.4%로 종영한 가운데, 총제작비 중 주연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뉴스1

유튜버 아ולם이, 삼성동 아이파크 66억 원 매입

전현무·권상우 부부가 선택한 아파트

모델 겸 유튜버 아ולם이(본명 김민영)가 강남의 고급아파트를 6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했다.

지난 1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ולם이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55평) 17구(25층)를 66억 원에 사들였다. 잔금은 지난 10월 치렀으며,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채권최고액 23억 3500만 원 규모의 시중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이 중 약 18억 6,8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실거주 의무에 따라 아ולם이는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준공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여전히 강남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이다. 지난 5월에는 전용면적 269㎡(펜트하우스)가 130억 4,352만 원에 낙찰되며 아파트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여러 연예인과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방송인 전현무는 2020년 말 전용 159㎡(59평)을 44억 9,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권상우·손태영 부부 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ולם이는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겸 사업가로 지난해 8월에는 혼자 생활하는 방 6개 규모의 아파트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뉴스1

박진영, ‘빌보드 신기록’ 스트레이 키즈에 순금 160돈 선물

순금 75g으로 만든 액자 각각 선물해
액자 8개에 들어간 금 가격만 1억 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에게 순금 160돈을 선물했다.

지난 15일 스트레이 키즈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PD님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박진영이 선물한 금으로 만든 액자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박진영이 스트레이 키즈의 여덟 멤버들에게 순금 75g으로 만든 액자를 각각 선물한 뒤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순금 75g은 20돈으로, 액자 8개를 모두 합치면 무려 160돈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기준 17

일 순금 160돈의 가치는 1억 270만 원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러한 순금 액자 선물은 최근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4집 '카르마'(KARMA)로 미국 빌보드 매일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점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 키즈는 '카르마'를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놓으며 그룹 통산 일곱 번째 '빌보드 200' 1위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 또한 '빌보드 200' 70년 역사 최초로 7개 작품을 연속으로 1위에 집행시킨 최초의 아티스트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글로벌 음악 시장 속 남다른 입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박진영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문화에 대



그룹 스트레이 키즈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다.

뉴스1

항소심은 다시 싸우는 자의 것이고, 결과는 더 철저히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수천 쪽 기록을 새로 읽고, 법리를 다시 세우는 자만이 판결을 바꿉니다. 항소심은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차이는 변호사의 실력에서 비롯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담책	리딩방 자금세탁	도박사이트 총책	음주무면허 항소심	투자사기 항소심	사설HTS 운영
징역 3년 6월 → 집행유예	징역 6년 → 징역 3년6개월	징역 8개월 감형, 추징금 5천만원 감액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징역 7년 →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 무죄

공소장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사건 검토, 분석이 가능합니다. | 사기·유사수신 | 가상화폐 | 리딩방 | 특금법(OTC) | 도박사이트 | 대포유심·통장 |

전지역 접견 상담 가능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맞춤 대응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25 로이ertz타워 1006호 (교대역 8번출구) 010-5234-6415

광고책임 **곽준호** 변호사

쿨케이, 병역 기피 논란 언급했다 “잘못된 선택, 손가락질 마땅해”

“그때 너무 군대가기 싫었거든요”... 징역형 집유 선고 후 군복무마쳐



DJ 겸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

쿨케이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 씨주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봤다)’라며 “저 역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쿨케이는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과거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쿨케이는 “(그 선택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과거를 바꿔 보려고 하고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제가 저지를 실수에 갇혀버렸다”라며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손가락질한다. 평생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쿨케이는 “제가 군복무를 다 마쳤고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다 끝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중요한 건 제가 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당시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쿨케이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그것조차 제 인생이고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쿨케이는 과거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병역 기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2008년 10월, 쿨케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1월 군입대를 해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뉴스1

‘비 올라잇’ 라이브 무대 최초 공개 팬 10만 명 모여 현장 인기 입증

그룹 아이브(IVE)가 ‘록 인 재팬 페스티벌 2025’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브는 지난 15일 일본 치바시 소가 스포츠공원에서 열린 일본 대표 록 페스티벌 ‘록 인 재팬 페스티벌 2025’(ROCK IN JAPAN FESTIVAL 2025)에 출연, 로투스 스테이지(LOTUS STAGE)에 올라 총 10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아이브는 올해 초 국내 음원 차트를 강타한 ‘레블 하트’(REBEL HEART)로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고, 곧바로 메가 히트곡 ‘아이엠’(I AM) 무대를 통해 탄탄한 라이브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후 관객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아이브는 미니 3집 ‘아이브 엠파시’(IVE EMPATHY)의 타이틀곡 ‘에티튜드’(ATTITUDE)로 흐름을 이어갔고, ‘키치’(Kitsch), ‘해야’(HEYA)로 힘찬 무드와 파워풀한 에너지를 뽐내며 믿고 보는 ‘K-페퍼’(페스티벌 퍼포먼스) 면모를 공고히 했다. 현지 팬들을 위한 세트리스트 구성도 빛났다. 일본 데뷔곡 ‘일레븐-일본어 버전’(ELEVEN-Japanese ver.) 무



그룹 아이브(IVE).

사진제공=Photo by seitaro tanaka photo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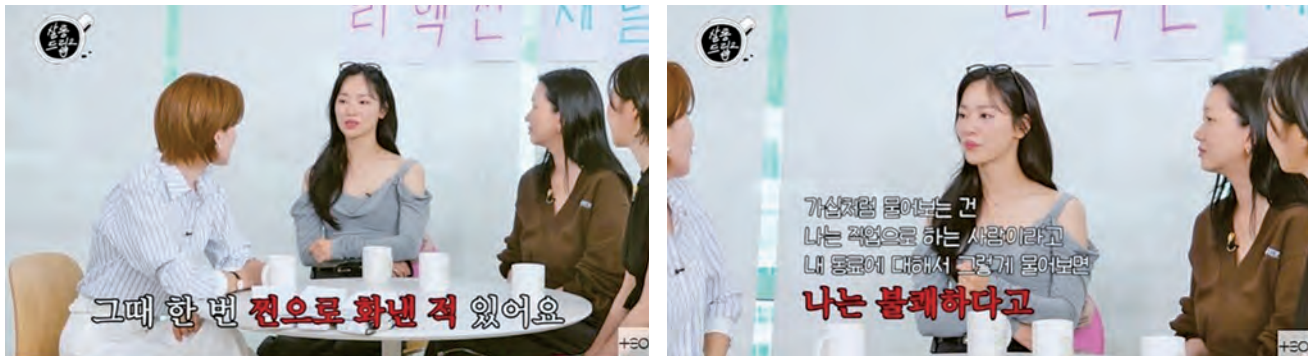
대부터 일본 NTV 드라마 ‘다메마네!-안 팔리는 탤런트, 매니지먼트 합니다-’ OST ‘데어 미’(DARE ME), 일본 3집 타이틀곡 ‘비 올라잇’(Be Alright) 무대가 이어지며 산뜻하면서도 당당한 아이브의 에너지가 절정에 달했고, 관객들은 떼창으로 화답하며 현장을 뜨겁게 물들였다. 특히 이날 공연을 통해 ‘비 올라잇’ 라이브 무대가 최초로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최근 발매된 한국 신곡 ‘XOXZ’(엑스엑스엑스지) 무대가 펼쳐

졌다. 일본 내 각종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얻은 만큼 현장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고, 아이브는 글로벌 메가 히트곡인 ‘애프터라이크’(After LIKE)로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첫 ‘록 인 재팬 페스티벌’ 무대를 성료한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록 인 재팬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준비하면서도 너무 설레는데 관객분들 덕분에 너무 많은 힘

을 얻고 가는 것 같다.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보답하는 아이브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2년 일본 정식 데뷔 후 탄탄한 팬덤을 구축해 온 아이브는 지난해 첫 번째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일본 팬콘 투어 ‘아이브 스카우트’ 인 재팬(IVE SCOUT IN JAPAN)으로 약 10만 명의 팬을 동원하며 막강한 현지 인기를 입증했다.

뉴스1

전여빈 “연예계 ‘카더라’ 묻는 친구들에 찼으로 화냈다”



배우 전여빈.

‘살롱드립2’ 캡처

누군가에겐가십이 본인에겐 직업 아무리 친구여도 ‘불쾌하다’ 전해 배우 전여빈이 ‘살롱드립2’에서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화를 냈던 일화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데오’를 통해 공개된 웹 예능 ‘살롱드립2’에는 ENA 새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의 주역 전여빈, 장윤주, 주현영이 출연했다.

해당 영상에서 전여빈은 사모임이 많지는 않다며 비연예인 친구들과 만나 학창 시절 추억 이야기를 주로 한다고 밝혔다. 10대로 돌아가 그때 그 시절처럼 떠들며 이야기한다고 이어 전여빈은 친구들이 연예계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냐는 질문에 “처음 작품 했을 때는 많이 물어봤는데, 제 성격을 아니까 (하지 않는다). 괜한 질문했다가 한 소리 듣는 거 아

니까”라고 고백했다. 전여빈은 연예계 ‘카더라’ 소식을 묻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전여빈은 “내가 가십으로 물어보는 걸 난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내 동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불쾌하다고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 친구들도 진지하게 생각해서 가볍게 안 물어본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1

‘중증 우울증’ 여에스더, 52kg까지 빠져... 무슨 일?

우울증 약 추가했더니 입맛 잃어 눕지 않으면 유튜브만 보는 일상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60)가 중증 우울증으로 힘든 근황을 전하며 대중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에는 ‘여에스더 최근 근황 “귀신처럼 하고 다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먼저 여에스더는 “살이 너무 빠진 것 같다”는 PD의 물음에 “52kg까지

체중이 빠졌다. 2kg 정도 줄었다”며 최근 몸 상태를 알렸다. 이어 “우울증 약을 하나 추가했는데 부작용이 입맛이 없어지는 것이다. 기운이 없는 건 안 좋은 점이다. 하지만 안 맞던 옷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남편 홍혜걸 의학박사는 “아내가 약이란 약은 다 먹는다. 감상샘암 수술도 했고 뇌동맥류, 중증 천식도 있다. 숨을 못 쉬어서 발작하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아내 여에스더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홍혜걸은 “우울증 때문에 아무 데

도 안 나간다. 지금은 촬영이라도 해서 이 옷을 입은 거지, 평소엔 귀신처럼 잠옷 입고 누워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나보고 예쁘다더니 내가 귀신처럼 보이나. 누워 있으면 ‘우리 통통이 예쁘다’고 하더니”라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남편 홍혜걸은 “립서비스였다. 아내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깨어 있을 때는 유튜브만 본다. 밥도 다 시켜 먹는다. 내가 돈이 없나 시간이 없나. 나도 맛집 좀 가고 싶다”고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뉴스1

광고책임: 박보영 변호사

의뢰인의 목소리가 성현의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성현 실제 고객후기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오늘 결과오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9:32

오전 9:33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끝났을까요??

오전 10:34

형사건 선고결과 보고드립니다

사건 : 2025년 관광진흥법위반 등

1. 징역 2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2. 금 20,773,333원 추징한다.

오전 10:36

석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오전 10:37

#박보영 변호사

#부산형사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 빌딩 6층 우편번호 47511
TEL. 051-503-5886 | 상담전화바로연결 010-5821-5886

성현
LAW FIRM

Starview

우기는 첫 싱글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 이번 싱글에는 타이틀곡 ‘M.O.’를 비롯해 ‘아프다’와 ‘아프다’의 중국어 버전인 ‘하이통마’(还痛吗)가 수록된다.

우기는 지난 2021년 디지털 싱글 ‘어 페이지’(A Page)와 2024년 4월 발매된 미니 1집 ‘YUQ1’로도 솔로 활동을 펼치면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우기는 1년 5개월 만의 싱글로 다시 한번 홀로서기에 도전한다.



뉴스1 아이들: #우기

사진제공=큐브엔터테인먼트

판결 결과 해설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좌모집책과 현금전달책을 포섭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오늘의 운세 결과



1 knight of cup 카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감정이 오가고 좋은 소식이나 로맨틱한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정에만 치우쳐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조언은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의 감정도 존중하며 관계를 조율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4 of cups 카드

무로함이나 권태감을 느끼기 쉬운 날임을 나타냅니다. 주변에서 기회를 제시하거나 좋은 제안이 와도 관심을 두지 않거나 지나칠 수 있으니 스스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멈춰 서지 말고 시야를 넓혀 당신 앞에 놓인 새로운 선택지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3 태양 카드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내면의 용기가 커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시기이니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기보다는 인내와 배려로 상황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며 부드럽지만 확고한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세요.



4 여사제 카드(역방향)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이나 상황 판단에서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사실을 놓칠 위험이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말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는 연습이 필요하며 비밀이나 숨겨진 정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완드4 카드(역방향)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선택의 순간에 우유부단해질 수 있어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큼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지나친 통제 욕구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다스리고 시야를 넓히며 차분히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6 queen of wands 카드(역방향)

평소의 활발함과 주도성이 줄어들어 계획했던 일이 지연되거나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거나 남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조언은 한 발 물러서서 감정을 정리하고 균형을 되찾으며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해 여유 있는 태도로 상황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7 page of swords 카드(역방향)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의심이 많아서 스스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있으니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며 불필요한 다툼이나 오해를 피하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8 소드3 카드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정리할 기회일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픔을 억지로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보고 감정을 정리해 더 건강한 관계와 선택으로 나아가세요.



2025. 09. 18(목)

일반 채널1- KBS1	일반 채널2- MBC	교육 채널1-SBS	교육 채널2-EBS1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31 생방송 KBS1 09:31 KBS 뉴스 10:00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KBS1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퍼니 [광주충국]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교육 사회문화 분야- 16:00 편성 안내 16:01 KBS 중계식 반 필하모닉 여름밤 콘서트 1, 2부 KBS2 녹화방송 250725 15:35 수상한 그녀 10회 (화, 목 드라마 총12회) KBS2 녹화방송 18:38 마음산책! 5분 인문학 포에버 데이 이원 모네상스 제공 19:00 안내 및 교육 19:05 생방송 KBS1 19:05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110회)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31 생방송 MBC 09:31 MBC 뉴스 09:55 중계방송 2025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MBC 13: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00 편성 안내 16:05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317회 KBS2 녹화방송 17:26 오은영의 스테이 4-1, 4-2회 1박2일 상담 여행 채널A 녹화방송 18:31 마음산책! 5분 인문학 포에버 데이 원 모네상스 제공 19:00 안내 및 교육 19:05 생방송 MBC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50 안내 및 교육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31 생방송 SBS 09:55 SBS 10 뉴스 10:30 꾸러기 탐구생활 11:00 100회 특집 생활의 달인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SBS 13:00 고향이 보인다 14:00 뉴스브리핑 15:30 편성 안내 15:35 수능 특강 정승익의 영어 35강 EBS+1 녹화방송 16:35 교정기관 직업훈련 자체 경복직업 훈련교도소 공조 병동 기계 에너지 관리 16:37 유 퀴즈 온 더 블록 299-1, 299-2회 tVN 녹화방송 18:33 마음산책! 5분 인문학 포에버 데이 원 모네상스 제공 19:00 안내 및 교육 19:05 생방송 SBS 19:50 SBS8 뉴스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31 생방송 EBS1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EBS1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50 편성 안내 15:56 새를 깨우소서 최선규 아나운서 2부 CBS 녹화방송 250219 17:15 오직 주님만 솔로 37회 CPBC 녹화방송 16:51 책! 책! 책! 73회 CPBC 녹화방송 17:15 오직 주님만 솔로 37회 CBS 녹화방송 17:50 교정기관 직업훈련 자체 경복직업 훈련교도소 방송 17:53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40회 BTN 녹화방송 18:15 날마다 좋은 날 22회 BTN 녹화방송 19:00 안내 및 교육 19:05 생방송 EBS1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0:40 세계테마기행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악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 (의료과) ▶폭행 피해 신고 안내 (보안과) ▶2025 식중독 예방 (복지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사항 공고 (의료과) ▶중간 치유 희망센터 대상자 모집 (분류심사과) ▶심리적 위기 수용자 자살 예방 (심리치료과)			

2025. 09. 19(금)

일반 채널1- KBS1	일반 채널2- MBC	교육 채널1-SBS	교육 채널2-EBS1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29 스마공 - 격언 자체 09:31 생방송 KBS1 09:31 KBS 뉴스 10:00 무엇보다 좋은 날 11:10 바나나 사랑 4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KBS1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5:40 편성 안내 15:41 스마공 - 속담 자체 15:48 동채야 찬다 4 19-1, 19-2회 JTBC 녹화방송 17:22 이는 형님 497-1, 497-2회 JTBC 녹화방송 16:34 지구 달력 자연의 사계 2강 TV 조 선 녹화방송 19:00 안내 및 교육 19:05 생방송 KBS1 19:05 KBS 뉴스 7 19:40 스카우트 6 열려라 잠터(16회) 20:30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111회)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29 스마공 - 격언 자체 09:31 생방송 MBC 09:31 MBC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0:45 헬로키키즈 TV생물도감2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45 달까지가자 프리미어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SBS 13: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4:00 뉴스브리핑 16:00 편성 안내 16:01 스마공 - 속담 자체 16:04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4, 5강 EBS+2 녹화방송 17:03 LIVE Wire 1, 7-2회 tVN 녹화방송 18:23 DVD 영화 디베르티멘토 20:08 안내 및 교육 20:09 생방송 SBS 20:09 SBS8 뉴스 20:50 금금한 이야기 Y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29 스마공 - 격언 자체 09:31 생방송 SBS 09:55 SBS 10 뉴스 10:30 꾸러기 탐구생활 11:00 TV 동물농장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SBS 13: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14:00 뉴스브리핑 16:00 편성 안내 16:01 스마공 - 속담 자체 16:04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4, 5강 EBS+2 녹화방송 17:03 LIVE Wire 1, 7-2회 tVN 녹화방송 18:23 DVD 영화 디베르티멘토 20:08 안내 및 교육 20:09 생방송 SBS 20:09 SBS8 뉴스 20:50 금금한 이야기 Y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09:25 편성 안내 및 교육 09:29 스마공 - 격언 자체 09:31 생방송 EBS1 09:31 평의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오전 TV 방송 종료 교화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이야기> 13:00 생방송 EBS1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지식채널e 14:50 교양이를 부탁해 15:20 모두 함께 부스! 17:03 LIVE Wire 1, 7-2회 tVN 녹화방송 18:23 DVD 영화 디베르티멘토 20:08 안내 및 교육 20:09 생방송 SBS 20:09 SBS8 뉴스 20:50 금금한 이야기 Y 21:00 TV 방송종료 및 교화 라디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악물 오남용 근절 캠페인 (의료과) ▶폭행 피해 신고 안내 (보안과) ▶2025 식중독 예방 (복지과) ▶중간 치유 희망센터 대상자 모집 (분류심사과)			

※ 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사 또는 교화방송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후기



형사전문 변호사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형민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성범죄 항소심 집중 대응

휴정기에도 상담·접견 가능합니다. 성범죄 항소심 집중 대응합니다.
절박한 순간, 휴가 없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의뢰인 후기
3,059



의뢰인 만족도
100%



의뢰인 총 평점
5.0/5



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2025. 8. 20. / 수사경찰서 / 2025-00547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2025. 8. 18. /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5형제587x호 / 아동복지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8. 1. / 경기도남부경찰청 / 2025-00586x / 성폭범위반(하위영상물반포등) / **불송치(혐의없음)**
2025. 7. 29. / 서울도봉경찰청 / 2025-00333x /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2025. 7. 2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형제866x호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영물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7. 17. / 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163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5. 7. 12. / 김포경찰청 / 2025-00770x / 성폭범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2025. 6. 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고합71x / 아동범위반(성매수등) / **선고유예(벌금300만원)**
2025. 6. 23. / 인천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5형제1223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6.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형제1553x호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5. 27. / 수원지방법원 / 2025형제2314x호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5. 2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고합2x / 아동범위반(위계등간음) / **구속집행정지 인용**
2025. 5. 1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56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5. 5. 16. / 인천지방법원 / 2025초보11x / 강제추행 / **보석 인용**
2025. 4. 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형제978x호 / hpv 성병 상해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3. 26. /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5형제49x호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3. 14. / 대구지방법원 / 2024형제219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매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3. 5. / 경기남부경찰청 / 2024-00655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2. 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09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5. 2. 7. / 인천지방법원 / 2025-13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 기각**
2025. 1. 20. / 춘천경찰청 / 2024-00150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1. 16. / 광주지방법원 / 2024노48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5. 1. 9. / 대법원 / 2023도1753x / 성폭범위반 /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5. 1. 6. / 경기북부경찰청 / 2024-00388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1. 2. / 제주지방법원 / 2025-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구속영장 기각**
2025. 1. 2. / 인천경찰청 / 2024-00699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영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 1. 2. / 경기분당경찰청 / 2024-00987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2. 17. / 경기용인동부경찰청 / 2024-01271x / 강제추행,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1. 22.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5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11. 22. / 대구지방법원 / 2023노509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11. 13. / 인천지방법원 / 2024형제6648x호 / 성폭범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1. 7. / 청주지방법원 / 2024노8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11. 6. / 부산지방법원 / 2024노115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4. 10. 30. / 대구경찰청 / 2024-00132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0. 11. / 수원지방법원 / 2024형제2066x호 / 성폭범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0. 2. / 서울도원경찰청 / 2024-00581x / 아동범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9. 30.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33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구속영장 기각**
2024. 9. 24. / 창원지방법원 / 2023노253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9. 24. / 수원남부경찰청 / 2024-01049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9. 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389x /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4. 9. 6. / 경기일산동부경찰청 / 2024-00808x / 아동범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8. 29. / 춘천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4형제558x호 / 아동범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8. 21. / 경기북부경찰청 / 2023-00312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8. 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158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원심파기**
2024. 8. 13. / 대구지방법원 / 2023노331x / 성폭범위반,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4. 8. 9. / 대전둔산경찰청 / 2024-00430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7. 26. / 대전지방법원 / 2022노371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4. 7. 9. / 대전고등법원 / 2024노16x / 성폭범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 **무죄**
2024. 7. 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73x / 성폭범위반 / 무죄 - **원심파기**
2024. 6. 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134x / 성폭범위반 / 무죄 - **원심파기**
2024. 6. 1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형제823x호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6. 13. / 청주지방법원 / 2023고정7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6. 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528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4. 6. 5. / 춘천지방법원 / 2024-15x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 기각**
2024. 5. 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73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5. 13. / 서울동대문경찰청 / 2023-00719x / 아동범위반(강간), 아동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5. 2. / 경북경주경찰청 / 2023-00440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5. 3. / 수원지방법원 / 2023노221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4. 4. 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14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4. 25. / 창원지방법원 / 2024형제490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4. 24. / 청주지방법원 / 2023노104x /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4. 4.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93x / 강제추행 / **무죄-원심파기**
2024. 4. 16. / 경기안산단원경찰청 / 2024-00163x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4. 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형제781x호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3. 19. /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3고합5x / 성폭범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 **무죄**
2024. 3. 14. / 대구경찰청 / 2023-00035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2. 19. / 서울경찰청 / 2024-00093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2. 19. / 서울경찰청 / 2024-00090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2. 14. / 경북포항남부경찰청 / 2023-00624x / 아동범위반(유사성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2. 8. / 대법원 / 2023도930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4. 2. 1. /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정2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4. 1. 31. / 수원지방법원 / 2024-11x호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구속영장 기각**
2024. 1. 26. / 수원지방법원 / 2024형제26x호 /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 1. 23. / 광주고등법원 / 2023노49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반조 / **무죄**
2024. 1. 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31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무죄**
2023. 12. 27. /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3형제1914x호 / 아동범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2. 22. / 대구지방법원 / 2023노186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12.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고단357x /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3. 12. 8. / 강원경찰청 / 2023-00127x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2023. 12. 6. / 대전지방법원 / 2021노423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3. 11. 26. / 경기수원남부경찰청 / 2023-01291x / 아동범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1. 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65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11. 23. / 울산지방법원 / 2022노120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3. 11. 22. / 인천지방법원 / 2022노211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11. 22. / 경기수원남부경찰청 / 2023-00947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1. 17. / 경기용인동부경찰청 / 2023-01013x / 강간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1. 15.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3고정6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11. 9. /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8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10. 30. / 대구탈성경찰청 / 2023-00336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배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0. 27. / 대구지방법원 / 2022노499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3. 10. 2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3고합8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반조 / **무죄**
2023. 10. 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형제15847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10. 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37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9.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정5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9. 2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30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3. 9. 19. / 서울강남경찰청 / 2023-01272x / 성폭범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9. 15. / 창원지방법원 / 2023고단82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9. 13. / 대전지방법원 / 2021노366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3. 9. 8. / 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230x / 아동범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반조 / **무죄-원심파기**
2023. 9. 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노123x / 성폭범위반,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3. 9. 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고정18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8. 31. / 울산지방법원 / 2023형제1807x호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8. 24. /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3형제1788x호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8. 11. / 부산지방법원 / 2022노102x / 아동범위반(성착취물소지) / **무죄**
2023. 8. 10. / 청주지방법원 / 2023고정24x /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3. 8. 9.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23고단6x /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8. 8. / 대구지방법원 / 2022노472x / 성폭범위반 / **무죄-원심파기**
2023. 7. 19. / 경기용인동부경찰청 / 2023-00509x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7. 18. / 수원지방법원 / 2022노413x(2023노268x병합) /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성폭범위반 / **무죄**
2023. 6. 29. /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처심 / 2023형제453x호 / 성폭범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반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 6. 14. / 청주지방법원 / 2023노1x / 성폭범위반, 정통범위반(음란물유포) / **무죄**
2023. 6. 13. / 대전고등법원 / 2023노6x / 성폭범위반(특수준강간) / **무죄(구속석방)**

NAVER

김형민 변호사

검색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4층, 401호
대표번호: 02-591-8660

※ 선임 시, 이미 납부하신 접견 비용은 선임비에서 차감, 정산됩니다.
변호사 직통 : 010-8074-8595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아청법 #도촬

광고책임변호사: 김형민 변호사

http://성범죄.net